



心實愛世
攝信慈度

본회는 등문상호간의 우의 증진과 모교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을 전개한다.

(본회비: 2만원)

東友會報

1997年(檀紀4330年) 1月14日 第175號(1)

발	행	인	秀
편	집	인	永
인	쇄	인	善
黃申金 明夏景			
東國大學校總同窓會			
서울특별시 종로구 관훈동 197-28			
백상빌딩 3층2호			
전화 : 733-3991~3			
FAX : 733-3992			
은행지로번호 7500891			

21세기는 동국인의 시대로!



활기찬 활동으로 병자년을
보내고 새로운 성축년을 맞
이하며



경주 코오롱호텔 야외 대연회장에
서 열린 체육대회 전야제에서 연
주하는 모교 국악과 합주단원들.

◆지면안내◆

- 2면: 동국인의 밤
- 3면: 총동창회장 신년사
- 4면: 동문동정
- 5면: 동문동정
- 6면: 지부·지회소식
- 7면: 지부·지회소식
- 8면: 지부·지회소식
- 9면~11면: 회비
- 12면: 동국학원 이사장 신년사
- 13면: 동국대학교 총장 신년사
- 14면: 지부·지회소식
- 15면: 동국인 체육대회
- 16면: 광고

祈願 (동문들을 위한 기도)

고난과 도전의 세월을

우리를 언제나 희망으로 비추는

별빛의 영광함은 설레임으로 빛나고

멀고도 험난한 大圓을 향해

당신

마음속에 자리하고 있는 당신의 太陽이

폭풍우를 헤치며 달리 웠습니다.

오직 祈願 하나만으로 달려사고 있습니다.

새벽의 어둠을 가르고

지난날의 아픈 상처가 그리움으로 여울쳐

곱고도 해맑은 아침해로

眞紅의 石榴알로 익어가고 있습니다.

정상의 고지에서

온 누리를 찬란히 비춰주소서.

제25회 동국인의 밤 성황리 개최

1997년은 15만 동국인의 적극적인 참여와 성원기대

「제25회 동국인의 밤」이 지난 12월 19일 장충동소재 소피텔 앰버서더호텔 2층 그랜드볼룸에서 동문 및 가족등 5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됐다. 신돌영(73법학) 본회 사무처장의 사회로 시작된 1부 행사는 개회, 국민의례, 김시래·축하패·공로패 증정, 회장인사, 축사, 개교 1백주년 기념사업회 사업보고 및 개교 1백주년 흥보 영화 상영, 케이나눔의 순서로 진행되었다.



문화의 시대로 진행된 2부행사에서는 동문들의 노래솜씨와 행운 상품추첨등을 통하여 동문들간의 우의와 결속을 다시한번 확인하는 자리가 되었다. 한편 이번 행사를 위하여 황명수 본회 회장, 송석구 모교 총장, 이두철(90지원) 지역개발대학원 동문회장, 구자선(81행원), 최성

균(60법학) 동문등이 협찬금을 전조해 주었으며 최형우(63정치), 김영구(62경제), 김영환(62경제) 동문등 많은 동문들이 행운 상품을 협찬하여 참여 동문들이 세밀을 맞이하여 뜻뜻한 동문들의 정을 느낄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되었다.



◇ 김시래

▲김영환(67정외)=남양알로에 시장경영담당 상무

▲이재형(68불교)=동국통상 대표

◇ 축하패

▲김기일(87법학)=38회 사법 고시 학격

▲정강대(85법학)=38회 사법 고시 학격

▲이병선(92법학)=38회 사법 고시 학격

▲김철완(96법학)=38회 사법 고시 학격

▲이법호(93행정)=40회 행정 고시 학격

▲안길준(93행정)=96년 공인 회계사 학격

▲전상훈(93회계)=96년 공인 회계사 학격

▲정수민(96통계)=96년 공인 회계사 학격

▲정홍준(95회계)=96년 공인 회계사 학격

▲이재성(90경영)=96년 공인 회계사 학격

▲이광영(94회계)=96년 공인 회계사 학격

▲유영근(93경영)=96년 공인 회계사 학격

▲조병관(90회계)=96년 공인 회계사 학격

▲허용범(93회계)=96년 공인 회계사 학격

▲주정호(96회계)=96년 공인 회계사 학격

▲김영문(93경원)=한국수출산 업남동공단협회회장 취임

▲박장화(78도복)=인천경제정

의실천시민연합 부집행위원장

▲김대원(70경행)=전북지방경찰청장(치안감)

▲이재관(89행원)=제1군 사령관(육군대장 승진)

◇ 공로패

▲황동훈=동국대학교 야구부 감독

▲김종립=동국대학교 야구부 코치

▲이승택(85임학)=태화진흥개발(주) 삼무이사

▲이상용(61국문)=동인천고등학교 교장

▲김용운(66사학)=(주) 필성운 대표이사

▲문정남(71경영)=전주 겹찰청

▲전안호(96시원)=대원철강(주) 대표이사

▲정호균(93지원)=울산정보통신공사 대표

▲임창수(96지원)=터미널꽃화원 대표

▲손근호(73행원)=(주) SPC 고리아 회장

▲현해천(75행원)=국회의원 박범진후원회 사무국장

▲한성혜(83경원)=한성혜요리 학원 원장

▲구교찬(64법학)=경북구미경찰서장

▲우성수(85법학)=기아자동차 도청밀리 대표

▲김종완(73법학)=대전 MBC 편성국 편성기획부장

▲이영구(63법학)=충청남도 교육청 부교육감

정성어린 성원 감사합니다

◆제25회 동국인의 밤 협찬금내역

(단위:만원)	▲박은규(61정외)=20	▲이무영(71행정)=10
▲김정원(동문회)=10	▲박종구(65경영)=10	▲이무웅(67불교)=20
▲강병국(68농경)=3	▲박종윤(59경제)=10	▲이상배(74법학)=10
▲고경우(78행원)=5	▲박진수(63국문)=10	▲이상연(94시론)=5
▲공진식(61경제)=10	▲박현성(75행원)=20	▲이상운(60정외)=5
▲구자선(93경원)=100	▲방원석(58정외)=10	▲이상진(66정외)=5
▲권상국(73경제)=10	▲백장관(회계)=50	▲이석용(58정외)=20
▲김경남(66정외)=10	▲서동호(66법학)=10	▲이영우(88정외)=10
▲김교근(63경영)=10	▲서예준(68법학)=20	▲이인정(72상학)=10
▲김기준(61경제)=10	▲성진경(62법학)=5	▲이정규(60정외)=10
▲김대원(68경행)=20	▲손한권(83경제)=5	▲이재곤(68경제)=20
▲김동길(61경제)=10	▲송달용(58농학)=10	▲이준립(62경제)=10
▲김동원(64정외)=10	▲송석구(62철학)=100	▲이춘근(76상학)=20
▲김동정(57법학)=30	▲송선훈(68농경)=20	▲이현진(85경원)=10
▲김명철(75경제)=10	▲신동욱(94불원)=10	▲이화일(65상학)=30
▲김문영(93경원)=100	▲심현설(65경제)=5	▲이희의(70법학)=10
▲김복철(62정외)=10	▲심희만(78연영)=10	▲이홍남(65정외)=10
▲김성태(79행원)=20	▲안병민(72토목)=10	▲임회(55법학)=3
▲김승제(68상학)=10	▲안보순(91행원)=10	▲장성길(69상학)=10
▲김여겸(71농학)=2	▲안종진(59영문)=10	▲장장순(65법학)=10
▲김영환(62경제)=20	▲안재란(54국문)=20	▲전순표(57농학)=10
▲김용구(71농학)=10	▲안철환(68경제)=10	▲정대진(63법학)=10
▲김용길(65법학)=3	▲양정오(81행원)=10	▲정용길(67행정)=10
▲김유복(51정치)=10	▲여운경(67정외)=10	▲정재호(62정외)=30
▲김윤숙(93행원)=20	▲오국근(58영문)=5	▲조규(77경원)=10
▲김재기(60경제)=10	▲오록원(동국학원이 사장)=5	▲조성운(56경제)=10
▲김정환(60국문)=5	▲오상홍(58법학)=10	▲조은구(68경제)=10
▲김재국(61경제)=10	▲오진모(61법학)=10	▲조재호(65불교)=10
▲김종태(60국문)=20	▲우순이(60정외)=30	▲조정원(57경제)=5
▲김진용(65경제)=10	▲원용근(71경제)=10	▲차문화(79정외)=5
▲김태영(85경원)=10	▲원용선(63영문)=10	▲최무정(66입학)=10
▲김현권(71경제)=5	▲유광진(64정외)=5	▲최병완(60정외)=10
▲김현표(55정외)=3	▲유귀동(65정외)=10	▲최성균(60법학)=100
▲김홍고(66상학)=10	▲유근창(50문화)=10	▲최세희(56국문)=5
▲남시혁(58정외)=5	▲유수택(64경영)=5	▲최용환(67농학)=10
▲동영회(회장=문선 기)=10	▲유월단(68불교)=20	▲최원우(81경원)=3
▲명화섭(81행원)=3	▲유정우(63법학)=5	▲한대현(91경원)=10
▲박광도(65불교)=10	▲유현국(49국문)=3	▲현창삼(94경원)=5
▲박삼봉(69상학)=5	▲윤대호(61정외)=10	▲홍사현(63사학)=10
▲박삼선(55법학)=5	▲윤일균(69행원)=10	▲홍석기(68경영)=20
▲박상규(61국문)=100	▲윤재룡(80법학)=5	▲홍정도(62정외)=10
▲박상호(68법학)=20	▲윤행순(65행정)=5	▲황명수(53정치)=100
▲박수철(57임학)=5	▲이동철(73경영)=5	▲황성준(78법학)=10
▲박유경(58정외)=10	▲이우철(90지원)=100	▲황용운(54경제)=10

계=2,093만원

◆제25회 동국인의 밤 행운상품 협찬내역

▲황명수(53정치)=칼라TV 1대	트
▲송석구(62철학)=가습기 1대	▲박동기(60법학)=축구공 1개
▲류주형(57농학)=양복기자 3 벌	· 농구공 1개 · 야구공 2개 (싸인볼)
▲박익주(61정치)=커피메이커 1대	▲이윤심(79교육)=여자한복지 1벌
▲김영구(62경제)=대형냉장고 1대	▲정성체(67법학)=고급은단 1 점
▲최형우(63정치)=대형세탁기 1대	▲김광구=코아롱호텔 숙박권 1 매 (1박2일용)
▲김일윤(92경원)=도자기 1점, 증정품 1점	▲성순경(95불원)=도자기 1세 트
▲김영환(62경제)=칼라TV 1대	▲정대진(63법학)=국세안내 500권
▲평복창(58정외)=칼라TV 1대	▲박상문(66국문)=서예 1점 및 작품집 (시가 40만원 상당)
▲김사홍(62법학)=쇼파카바 1 조	▲신우철(66정치)=농산품 1조
▲이석기(67법학)=최신전화기 3대	▲윤천영(66농학)=실크스카프 1점
▲민백기(64상학)=콩코드호텔 숙박권 1매 (2박3일용)	▲정광시(82경원)=넥타이 5점
▲이능희(65상학)=화장품 10세 트	▲오태갑=작품집 15점 (난, 대 나무)
▲임덕규(60법학)=시계 1점	▲국회동우회=진공청소기 1대
▲정재기(68정외)=화장품 10세 트	▲김영환(67정치)=화장품 3세 트

이와 같은 동문들의 성원에 힘입어 우리 동국대학교가 21세기에는 세계의 유수대학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개교 1백주년 기념사업소개에서는 제3캠퍼스 설립 취지 소개 및 앞으로 동국대학교가 나아가야 할 방향등을 제시하여 참석 동문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이어 총동창회와 동국대학교의 발전을 기원하는 15만 동국인의 마음을 모아 행한 케이나눔이 힘찬 박수속에 거행되었다.

1부에 이어 김종석(개그맨) 동

친애하는 동국인 및
동국인 가족여러분.

정족년의 새해를 맞아
본인은 농국인 및 농국
인 가족 여러분에게 복
많이 받으시라고 인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쪽
의 태양은 밝게 떠올라
새로운 희망과 꿈과 큰
보람을, 우리들의 양양
한 앞길을 축복해주고
있습니다. 아니 희망과
꿈을 키워 큰 보람을 동
국대학교와 총동창회의
발전으로, 동국인과 동
국인의 가족들에게 효를
근본 생활철학으로 삼아 회복
행복과 도덕과 윤리가 충만한
삶을 누리라는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빛나고 있다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지난해를
회고해 보면 회장소임을 맡은지 3년여, 90주년을 맞이
하였고, 2006년 동국 100주년의 원년으로서 토대를 쌓았
고, <비전! 동국100년> 후원의 밤을 성공적으로 이루어
지도록 협조하였던 바, 서울에서, 경주에서, 동국인 가
족여러분·스님·불자들이 적극적으로 동참하여 후원금
270여억원의 결실을 거둔바 있습니다. 감사할 데를입니다.
분당한방병원 개원식에 참석하여 한방의술의 선구자
로서의 동국의 위치를 고양시켰으며, 일산캠퍼스 조성·
계약체결에 이르기까지 이사장님·총장님과 합심하는데
진력한바 있습니다. 또한 동우장학재단 이사장으로서
우수한 후배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여 인재육성에 일조
하였고, 「제25회 동국인의 밤」에서는 사법고시·행정고



총동창회장 황명수

21세기 동국발전은 동국인의 사명

'97년은 전동국인이 참여하는 총동창회로

시·공인회계사 합격자들에게 축하패를 전달하여 모교 총장님과 지도교수들의 노고를 치하드린바 있습니다. 본인이 이렇게 동국의 발전과 2006년 동국 100주년이 되는 날, 농국의 역사에 기억될 일을 수행할 수 있는 큰 힘을 주신 분들은 과연 누구이겠습니까?

그분들은 다름 아닌 농국인! 동국인 가족여러분! 부처님의 가파! 아니겠습니까?

어찌 진심에서 우러나는 감사를 여러분들에게 드리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자! 이제 새해에는 과연 어떤 임무를 본인이 수행해야 하겠습니까?

할 일이 너무도 많습니다. 국가적·국제적·세계회의 물결이 방송매체, 언론매체를 통하여 우리나라 전체가 요동치고 있습니다. WTO, OECD, APEC, 독도는 자기 땅이라고 맹언하는 일본, 폐루 테러사건, 한국의 국제적 중추적 역할론, 북한 잠수함사건으로 인한 북한의 직접 사과, 분단된 한반도, 남북화해로 한민족의 통일 등등 차분한 마음으로 되돌아와 동국대학교 총동창회장으로서 해야 할 일을 본인은 생각해 봅니다.

첫째로, 동국의 발전은 동국인이며 누구에게나 짐지워지는 시명입니다.

둘째로, 장학금 지급사업은 계속되어야 할 후배들에

대한 격려와 성원입니다. 그러나 수혜자들이 선배들과 후원인들의 인간적 사랑을 느끼고 감사해야 할 줄 알아야 한다는 문제가 남을 수 있다는 사실에 눈을 돌려야 하겠습니다.

셋째로, 동국대학교 울타리에서 불철주야로 학문을 탐구하는 후배동문들에게 양서를 보내기 위해 도서모으기를 계속할 것입니다. 뜻있는 동문들의 동참을 적극 권장하고자 합니다.

넷째로, 동국대학교의 총동창회관 견립문제입니다. 타 대학교의 동창회관에 대해서는 논하지 맙시다. 첨언은 생략하겠습니다.

해방된 조국과 민족의 얼을 이어 받은, 호국불교의 역사를 이어받은 동국의 역사가 자부, 긍지, 청의, 개발의 역사가 되도록 동국인·동국인가족들은 최선의 삶을 영위하며 동국의 역사가 아니라 이민족의 역사에 길이 길이 빛나도록 금강경을 사경하는 마음으로 기록하여 나갑시다. 밝아온 새해! 모든 동국인과 동국인 가족이 무병 장수하고 심신을 건강하게 단련하여 동국의 발전과 총동창회의 번영을 성취하는 원년이 되게 합시다. 우리의 이웃을 지극 정성을 다하여 사랑하며 사는 삶이 민족의 통일을 앞당기는 1997년이 되도록 밀원하면서 새해인 사에 기름합니다.

정축년 신년 교례회 개최

15만 전체 동문의 참여로 동국발전 기원



본회 주최 「신년교례 조찬회」가 지난 1월 11일 오전 7시 30분 소공동 소재 프라자호텔 22층 덕수홀에서 70여명의 회장단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본회 신들영 사무처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행사는 개회, 국민의례, 애국가 부창, 북념, 회장인사, 총장인사, 고문 인사, 최형우 의원 인사, 연회의 순으로 진행되었다. 황명수(53정치)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모든 동문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지난 한해 본회와 모교는 여유로 빛나는 발전과 성과를 이루었다. 동국발전에 기여한 동문들에게 감사를 드린다"고 말한 후 "주도 면밀한 계획으로

로 차질없게 임기동안 열심히 하여 학교발전에 기여할 것이다. 더욱 발전하는 동국인이 되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이어 송석구 총장은 "새해의 희망을 성취

하겠다는 교례회에 많은 동문들이 참석하여 주셔서 감사하다. 대학의 힘은 동문들에게 나오는 것이니만큼 올해도 전동국인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한다"고 한후 "동국발전을 위해 새로운 각오로 열심히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근창고문은 "노사문제의 원만한 타결로 경제력을 제고하는데 모든 노력을 기울이자"고 말했다. 이어 최형우 의원은 "새해에는 15만 동국인 모두가 발전하는 해가 되길 기원한다"고 말한 후 "정치인은 시대의 요청에 따라 행동하는 것이 정치인의 사명"이며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면 이루어 진다는 확신을 가지고 행동해 왔으며 역사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왔다"고 강조

했다. 또한 "총장과 회장을 중심으로 15만 동문 전체가 한마음으로 동쳐 새롭게 변모하는 동국 대학교로 발전하길 기원한다"고 했다.

1시간 30여분동안 진행된 신년 교례회에서 참여 동문들은 정축년을 활기차고 보람된 한해로 만들 것을 다짐했다.

경영학과 송년의 밤 동문간의 정 확인

경영학과 동문회(회장=남기일·72경영·삼연유지(주) 부사장) 송년의 밤이 지난 12월 27일 오후 7시 잠실 롯데호텔 3층 크리스탈룸에서 열렸다. 이날 행사에는 경영학과 출신의 동문 및 많은 내외기부인이 참석해 한해를 마무리하고 다시 시작되는 새해를 축하하며 동문들간의 따뜻한 정을 느끼는 흐뭇한 자리가 되었다.

후 배 들 에 게 한 권 의 책 을



- 모교에 도서보내기운동 및 도서기금 모금운동을 시작하며 -
본 동창회에서는 개교 90주년을 맞이하여 제2의 도약을 준비하고 있는 모교에 <도서보내기 운동> 및 <도서기금 모금 운동>을 전개하고자 합니다.

대학의 발전이 열심히 연구하는 교수, 향학열에 불타는 학생들로부터 비롯됨을 우리는 알고 있으며, 그 기초가 도서관 발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또한 알고 있습니다.

모교 도서관은 그 동안 장족의 발전을 이루어 100만권의 장서를 바라보게 되었으며, 4년여의 준비기간을 거쳐 도서관전산화 시스템의 개통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내 최고의 명문대학, 세계의 대학으로의 도약을 목표로하고 있는 모교로서는 그 장서량과 기기야 아직은 부족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본 동창회에서는 우리의 후배들이 더욱 좋은 환경에서 책과 더불어 열심히 공부할 수 있도록 동문 여러분의 힘을 모으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보낸 책 한권이 후배들의 학문 연마에 큰 힘이 되고, 모교의 비상에 밀거름이 될 것입니다.

동문여러분의 뜨거운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1996. 9.

동 국 대 학 교 총 동 창 회 장 황 명 수

접수방법: 도서직접 운송(자택이나 사무실에 있는 책 운송) 도서상품권 참여

기금참여(지로번호: 7500891 외환: 150-22-01536-0 예금주: 동국대학교 총동창회)

접수처: 동국대학교 총동창회 사무처 110-300 서울시 종로구 관훈동 197-28번지 백상빌딩 302호

TEL 02)733-3991~3·FAX 02)733-3992·동국대학교 중앙도서관 사서과 ☎ 02)260-3451

同門동정



本人의 근황이나 주위 동문들의 제소식들이 있으면 언제라도 제보바랍니다.

육당 학술대상 수상 김동준동문

▲ 김동준(55국문·모교 명예 교수)동문은 지난 10월 31일 오후 5시 서울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 제12회 육당 시조 시문학상 학술대상을 수상했다.

회장직 연임의결 이석용동문

▲ 이석용(58정외·본회 부회장·대한손해보험협회 회장)동문은 지난 10월 8일 대한손해보험협회 임시총회에서 11월 14일로 임기가 끝나는 회장직을 연임하기로 의결됐다.

주택공제조합 이사장 선임 김재기동문

▲ 김재기(60경제·본회 부회장)동문은 지난 10월 30일 오후 63빌딩에서 열린 주택공제사업조합 제7차 정기총회에서 주택공제조합 이사장에 선임됐다. 김동문은 한국주택은행장을 역임했으며 현재 한국씨름연맹 제4대 총재로 재임중이다. 또한 김동문이 대표로 있는 사랑의 장기기증 운동본부 산하 「사랑의 각막은 행」은 지난 11월 20일 오전 서울 조선호텔에서 「사랑의 각막 기증의사 표시제도 추진대회」를 열었다.

불우가정 방문 위로 이상윤동문

▲ 이상윤(60정외·본회 상무이사·대한석탄공사 사장)동문은 지난 12월 26일 서울 성북구 이교자씨등 불우가정 10가구를 방문, 월동용 연탄 5백장씩을 나누어 주고 위로했다. 그리고 지난 10월 30일에는 베트남 응비석탄회사 레반 디우사장 일행의 예방을 받고 무연탄과 장기공급 증대방안에 대해 논의했으며 또한 지난 9월 20일 추석을 앞두고 태백시 장성병원, 서울 성모병원 등 전국의료기관에서 업무수행중 불의의 사고로 입원치료중인 환자와 진폐로 요양중인 시원들에게 위문품을 전달했다.

동국발전기금 전달

▲ 금강종합건설(주)에서 송석

구 모교 총장에게 동국발전기금으로 5억원을 전달했다. 금강종합건설은 정상영(61법학)동문이 회장으로 있는 고려회학·금강그룹의 자회사이며 서석구(63법학)동문이 대표이사로 있다.

전국연구회협의회 회장선임 오진모동문

▲ 오진모(61법학·본회 부회장·강원개발연구원장)동문은 지난 12월 12일 대전 유성관광호텔에서 열린 전국지도 연구원 협의회 96년도 정기총회에서 제4대 회장으로 선임됐다. 또한 오동문은 지난 10월 9일 경주 코아통 호텔 대회의실에서 미국 리스 베이거스시와 한국지방자치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지방도시 특수회와 세계화 전략」 심포지엄에서 「관광산업의 국제화 전략」 이란 주제를 발표했다.

동대부중 교장 발령 김원식동문

▲ 김원식(61정외·본회 이사)동문은 지난 9월 2일 자로 모교 사범대학 부속 중학교 교장으로 전보발령됐다. 김동문은 동국학원(동대부고, 명성여중고)에서만 31년 근속하였으며 96년 2월 2일에는 오로원 재단 이사장으로부터 흥제·보탑건립으로 표창패를 받았으며 지난 10월 14일에는 전국 사립학교장회에서 30년 근속상을 받았다.

통일안보문제 간담회 개최 김훈기동문

▲ 김훈기(61정외·본회 부회장·평안남도지사)동문은 지난 12월 23일 오후 5시 30분 서울 부암동 하림각에서 탈북자 36명을 초청, 송년간담회를 가졌으며, 또한 지난 12월 6일에는 신라호텔 영빈관으로 도민 50여명을 초청, 통일 안보문제에 관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법사도량 개원 법회 목정배동문

▲ 목정배(62불교·본회 상무이사·모교 교수)동문은 지난 10월 3일 오후 2시 서울 장충동 2가 뉴장충빌딩 1층에서 「재가법사 수행도량인 법사도량 개원 및 삼존불 점안법회」를 봉행했다.

세미나 개최 송석구총장



▲ 송석구(62철학·본회 지도위원·모교 총장)박사는 지난 9월 18

일 오후 2시 모교 90주년 기념관 예술극장에서 「장묘문화 바꿔야 한다」란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또한 19일 오후 7시 90주년 기념관 예술극장에서 최형우(63정외·본회 지도위원·국회 의원)동문을 초청, 「21세기 정보화 사회 한국 정치의 과제」란 주제로 특강을 개최했다.

인쇄의날 기념식 개최 박충일동문



▲ 박충일(62법학·본회 상무이사·신흥인쇄(주) 회장·대한인쇄문

회협회장)동문은 지난 9월 19일 오전 10시 30분 서울 서교동 서울인쇄문화회관 4층 강당에서 「제8회 인쇄의 날 기념식과 제12회 인쇄문화상 시상식」을 가졌다.

학술세미나 개최 김진철동문

▲ 김진철(62정외·모교 사회과학연구원장)동문은 지난 10월 18일 모교 90주년 기념관에서 「세계화와 한반도 통일」, 이란 주제로 학술세미나를 개최했다.

서민대상 수여식 거행 정기용동문



▲ 정기용(62정외·본회 이사·한국서민연합회 회장)동문은 지난 12월 11일 오후 6시 서울 프레스센터 20층 국제 회의장에서 「제3회 올해의 위대한 서민 대상 수여식 및 송년의 밤」을 개최했다.

북경대 명예교수추대 최형우동문



▲ 최형우(63정외·본회 지도위원·국회 의원)동문은 지난 12월 20

일 중국 북경대로부터 명예교수로 추대됐다. 최동문은 이날 특별강연을 통해 새로운 한·중 산업협력의 일환으로 양국의 산업구조를 상호보완적인 것으로 조정해가는 공동 성장벨트를 형성해 나가자고 주장했다. 최동문은 또한 지난 11월 15일부터 서울 백상기념관에서, 또 23일부터 부산 상공회의소에서 각각 5일동안 「온산 최형우 서전」을 개최했다. 최동문의 이번 서예전은 지난 89년에 이어 두

번이며 수입은 전액 장애인 돕기에 쓰여졌다.

창립30주년 기념식 윤형두동문

▲ 윤형두(63법학·도서출판 범우사 대표)동문은 지난 9월 21일 오후 3시 서울 종로 태평로 한국프레스센터 20층 내셔널 프레스클럽에서 「창립30주년 기념식과 제11회 독후감 현상모집 시상식 및 제6회 범우출판장학금 수여식」을 열었다. 66년 8월 설립된 범우사는 동서양 고전문학과 사상서적을 주로 출판해왔으며, 이번 기념행사에서는 30여년동안 범우사에서 책을 낸 저자 및 역자(홍경호·한양대교수 등)들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국제학술회의 개최 임기중동문

▲ 임기중(63국문·동국어문화 회 대표)동문은 지난 11월 29일 오후 2시 모교 학술문화관 세미나실에서 제1회 한·중 국제학술회의를 열었다. 「중국 대학교육에 있어서 한국 말과 글 교육의 현황과 전망」을 주제로 한 이번 세미나에는 한·중 양국의 한국어 문학자들이 참가, 주제 발표와 토론을 벌였다.

학술발표회 개최 심정근동문

▲ 심정근(64정외·서울시립대학 교수·한국지방재정학회 회장)동문은 지난 10월 12일 오후 2시 한국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 「지방세의 신고납세제도 및 서울시세 징수방법의 문제점과 개선안」, 이란 주제로 제2차 학술 발표회를 개최했다.

학술 심포지엄 참석 이궁규동문

▲ 이궁규(65법학·본회 지도위원·국회 홍경동 위원장)동문은 지난 12월 5일 오후 1시 서울 프레스센터 19층에서 「새로운 패러다임의 사회공동체 모색」 주제의 학술 심포지엄에서 「경제발전과 리더십」, 제목으로 주제발표를 했다.

불우이웃방문 김태곤동문

▲ 김태곤(65행정·본회 상무이사·한국지역난방공사 사장)동문은 지난 9월 19일 하오 추석을 앞두고 경기 성남시에 있는 소망재활원을 방문, 성금을 전달하고 한국지역난방공사 산하 6개

지점 관내의 소년소녀가장등에 계도 위로금을 전달했다.

대한매일신문 사장취임 김양일동문

▲ 김양일(63정치)동문은 지난 10월 12일 울산에서 밀행되는 대한매일신문 사장에 취임했다. 김동문은 KBS홍보위원, 신아일보 이사, 경북매일신문 사장, 국도일보(대전 회장) 지난 연론인이며 또한 문단에 데뷔한 수필가 이기도 하다.

한국문학학술회의 개최 홍기삼동문

▲ 홍기삼(66국문·모교 어문학부 교수)동문은 지난 9월 19, 20일 양일간 모교 90주년 기념문화관 제2세미나실에서 「현대 한국 여성의 문화적 초상」을 주제로 한국문화 학술회의를 개최했다.

장병에 금일봉 전달·위로 설승웅동문

▲ 설승웅(65수학·본회 이사·용산구청장)동문은 지난 12월 10일 오전 용산구 방위협의회 위원들과 함께 수도기계회사단, 육군 제10방공단 등의 장병들을 찾아 금일봉을 전달하고 위로했다. 설동문은 또한 지난 10월 29일부터 11월 2일까지 서울 용산구민회관에서 제4회 용산구 초대 사진작가 회원전 개막식을 열었다.

동국발전기금 전달 이화일동문

▲ 이화일(65상학·본회 부회장)동문은 지난 12월 16일 송석구총장에게 동국발전기금으로 5천만원을 전달했다.

이동문은 적벽돌 등의 생산업체인 조선내화(주) 부회장으로 있다.

특별강연회 개최 정용길동문

▲ 정용길(67행정·본회 이사·모교 행정대학원장)동문은 지난 10월 1일 오후 8시 모교 90주년 기념문화관 제2세미나실에서 독일 하이델베르크대 클라우스 폰 바이메 교수를 초청, 「독일통일·성공인가, 실패인가」, 이란 주제로 특별강연회를 개최했다.

또한 정동문은 지난 10월 31일 밤 8시 모교 90주년 기념문화관에서 「통일독일의 행정통합」, 이란 주제로 30주년 기념특별강연회를 개최했다.

**국제걷기대회 개최
선상규동문**



▲ 선상규
(72 응용생
물·본회 이
사·모교 학
생부처장·
한국체육진
흥회장) 동문은 지난 10월 12일
과 13일 이틀간 강원도 원주시
에서 '제2회 국제걷기대회'를
개최했다. 또한 12일 밤 9시에
는 원주 치악회관에서 '국제친
교의 밤'을 개최했다.

**교육위원회 의장에 선출
나영수동문**

▲ 나영수(국문) 동문은 지난
10월 30일 서울시 교육위원회 3
차 본회의에서 공석증인의
의장에 선출됐다. 재직의원 25명
 가운데 19명이 참석, 이중 16표를
 얻어 당선된 나동문은 93년부
 터 전남전문대 교수로 재직중이
 며 91년부터 27년에 걸쳐 교육위
 원을 맡고 있다.

**문화박사 학위 취득
정상옥동문**



▲ 정상옥
(72 행정·계
명대학교 미
술대학 서예
과 교수) 동
문은 지난 6
 월 28일 중국 산동성 제남시 소
재 산동대학에서 「중국서법미술
의 역사적 발전과 그것이 한국
에 미친 영향」이란 논문으로 문
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정동문
은 60년초, 동방연서회에서 일
중 김충현, 여초 김응현 양선생
으로부터 서예를 공부하기 시작
하였고 65년 모교 입학후에는
전국학생서예전에서 최고상을
받는 등 각종 서예 공모전에서
입상하는 실력을 보였다. 그후
정동문은 92년 서예미술의 본고
장인 중국 산동대학 중문계 미
술연구소 박사과정으로 입학하
여 만학의 어려움을 딛고 각고
의 노력으로 사상 최초로 서법
미술연구로 문학박사 학위를 받
게 되어 명실공히 이론과 실기가
병행하는 서예가가 되었다.

**자원봉사한마당 개최
박현성동문**



▲ 박현성
(75 행원·본
회 지도위
원·대한불
교 청소년교
화연합회장)
동문은 지난 10월 27일 오전 10
시 서울 노원구 종계동 중원중
학교에서 「96청소년 자원봉사한
마당 미술복지 지도민들기」 행
사를 개최했다.

**일본유학 박람회 개막
정동호동문**

▲ 정동호(77정의·한국유학인
연합회 회장) 동문은 일본유학을
희망하는 학생과 일본어 전문학
원을 대상으로 한 일본유학 박

람회를 지난 9월 21일 오전 10
시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 크리
스탈볼룸에서 개최했다. 22일까
지 계속된 이번 행사는 도쿄대
등 일본내 55개 대학의 국제재
당교수 및 직원 84명이 참석,
일본의 유학정책 및 자신들의
대학을 소개했다.

**개교 기념식 거행
이근우동문**

▲ 이근우
(77불교·청
담종합고등
학교 교장)
동문은 지난
10월 9일 청
담종합고등학교 20주년 및 청담
중학교 개교 27주년을 맞이하여
개교 기념식과 국악연주회 등 학
부모들과 동문들이 참석한 가
운데 다채로운 행사를 열었다.
또한 10월 11일에는 청담종합고
등학교 광명정사에서 「불교적
인격형성을 위한 예절교육방안」
이란 주제로 교학연구발표회를
개최했다.

**한국청년대상 수상자 선정
이종태동문**

▲ 이종태(83경영) 동문은 지난
10월 12일 광주에서 개최된 제
45차 한국JC 전국대회에서 한국
청년대상 문화부문 본상 수상자
로 선정돼 상패와 함께 상금 2
백만원을 수상했다. 이동문은
지난 88년 두두리극단 창립의
산파역에서부터 활성화에 이르
기까지 크게 기여한 공로가 인
정돼 이번 수상의 영예를 안게
되었다.

**시집 출판기념회 개최
김상훈동문**

▲ 김상훈
(81 행원·본
회 부회장·
부산일보 전
무이사) 동문
은 지난 11
월 18일 오후 6시 30분 부산 동
구 수정동 부산일보사 10층 대
강당에서 제3시집 「내 품에 들어
든 자네 바람되게」, 제4시집
「사거」, 제5시집 「다시 송라에서」
로 제15회 조연현문학상 수상자
로 선정되어 11월 22일 오후 5
시 서울 동숭동문예진흥원강당
에서 수상했다.

**세미나 개최
이배영동문**

▲ 이배영
(84 행원·본
회 상무이
사·은평구
청장) 동문은
지난 11월 6
일 오후 2시 세종문화회관 대회
의실에서 「민족공동체 형성을
위한 남북간 문화교류」란 제
의 세미나를 개최했다.

50여년의 세월동안 형성된 남
북간의 문화적 이질감을 동질
화 시키고 5천년 동안의 친란한

민족문화로 발전시켜 나아가 통
일을 향한 국민적 공감대와 기
반을 조성하고자 마련한 자리
이다. 또한 이동문은 지난 10
월 31일 오후 2시 통일로에서
제1회 통일로 파발제를 개최했
다. 조선시대 통신수단이던 파발
미제도란 중앙에서 길금연락사
항이나 공문서를 지방으로 전달
하기 위해 일정거리마다 포줄을
상주시켜 텔레이식으로 연결하
던 통신방법이다. 이번 파발제
의 하이라이트는 은평구청·통일
로·구파발 역세권주차장 5.7KM
구간에서 2시간 30분동안 펼
쳐진 포발대 행진이다. 걸어서 문
서를 전달하는 포발과 말을 이
용하는 기발한 선보이고 무사와
감사 포줄 공수 암행어사 일행
등 200여명이 당시 복장과 진형
으로 행진했다.

**출판기념회
박수천동문**

▲ 박수천(77
행정·양평발
전 연구소 소
장·본회 전
감사) 동문은
오는 3월 12
일 「아버지 날 낳으시고 어머니
날 기르시니」 출판기념회를 앰베
서더 호텔에서 가질 예정이다.

**한국청년대상 수상자
진병길동문**

▲ 진병길(84국사·신라문화원
원장) 동문은 지난 9월 문화사업
에 기여한 공로로 한국JC특우
회에서 수상하는 청년대상 문화
후보 수상자로 선정돼 상패 및
상금 5백만원을 받는 영예를 차
지했다.

**곤이랑 아트홀 개관
김형곤동문**

▲ 김형곤(85국교·개그맨) 동
문은 지난 10월 30일 오후 서울
대학교 소극장 J아트홀을 인수,
이름을 곤이랑아트홀로 바꾸고
개관 기념식을 가졌다. 김동문
의 이름을 딴 이 소극장은 230
석의 객석을 갖춘 연극 전용무
대이다.

김동문은 극장을 인수했다는
사실 자체가 연극을 끝까지 해
보겠다는 다짐이라며 극장이 생
긴 민족 소극장 유자결과 대선을
겨냥한 작품을 통해 다양한 레
퍼토리를 선보일 계획이라고 밝
혔다.

**장학금 전달
임인배동문**

▲ 임인배(94행원·국회의원)
동문은 지난 11월 23일 하오 2
시 경북 김천시 김천문화센터
대강당에서 소년소녀가장등 불
우종고생 200명에게 96년 후반
기 덕천장학회 장학금을 전달
했다.

정기 심포지엄 개최
신영균동문

▲ 신영균(예술원·국회의원)
동문은 지난 11월 14, 15일 양일
간 충남 아산 은양제일호텔에서

**제12회 경향 전기·에너지 대상 수상
이두철 삼창기업(주) 대표이사**

▲ 이두철(90지원·본회 부
회장) 삼창기업(주) 대표이사
동문이 「제12회 경향 전기·
에너지 대상」에서 국내 계측
제어 설비분야의 기술인력 양
성으로 원자력발전소 계측제
어 전자카드 국산화에 공헌한
공로로 영예의 대상을 수상했
다. 이동문은 70년대 국내에
서 미개척지였던 이분야에 뛰
어들어 74년 협동에너지니어링
을 창립하여 국내 원자력발전
소 건설분야에 참여, 고도의
첨단기술이 요구되는 계측제
어 설비의 시공과 시운전 공사
부문에서 하나씩 기술을 축적
해 왔다. 이 과정에서 이동문
은 계측제어 관련 기술인력이
거의 없는 현실을 직시, 기술
의 저변확대에 나섰다. 현재
곳곳에서 활동중인 1,000여명
의 이 분야 전문가들이 양성
되기까지는 삼창기업의 역할
이 커다. 이동문은 삼창기업
을 통해 국내 원전의 도입단
계에서부터 현재 가동중인 10
개 원전의 운전에 이르기까지
계측제어설비시공, 시운전,
연차 보수공사, 설비개선공사
등을 수행해왔다. 또 이를 통
해 쌓은 기술축적으로 원전
계측제어설비 정비전문업체로
널리 인정받고 있다. 이동문
은 한층수준높은 기술력 확
보와 계측제어시스템 국산화
를 위해 92년 연구소를 설립
했다. 연구소는 국산화의 꿈을
이루 자체 공장도 가지고
있다. 그 결과 설비 국산화
의 초기단계인 원전 계측제
어시스템의 전자제어카드 기
능 및 부품 수명 기준을 진단
하는 프로그램을 완성하고 9
개 원전에서 10만개에 달하는
64종의 프로그램 및 시험 장
비를 개발했다. 한전도 성과
를 인정, 국내 유일의 원전
계측제어시스템 진단업체로
인정했다. 현재 삼창은 94년
통산부가 생산기술 과제로 선
정한 원전 계측제어분야 전
자제어카드 82종의 국산화 마
루리 작업을 남겨두고 있다.
이중 15종은 국내 최초로 개
발을 마쳤고 올해안으로 나마
지 기술개발도 끝내 내년부
터는 설비분야에 현장적용할
예정이다.

「21세기 한국예술의 위상정립」
을 주제로 정기 심포지엄을 개
최했다.

**백양사 방장추대
이서옹스님**

▲ 대한불교 조계종 전 종정인
이서옹(종암불교전문학교) 스님
의 고불총림 백양사 방장 추대
식이 지난 10월 25일 오후 전남
장성 백양사 대웅전에서 열렸
다. 고불총림은 1947년 한국불
교 최초의 총림으로 창립되었으나
6·25 전란으로 백양사가 소실
되는 바람에 폐지됐다가 최근
복원됐다. 이날 추대식에서 서
옹스님은 법어를 통해 「인류는
이기적 육방으로 과학문명의 노
예가 돼 혼란이 극에 달해 있고,
허무주의와 유행철학에 지
배되고 있는 이류가 잘 살면
인간주의도 초월하고 신의 노예
도 아닌 참사람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낭랑한 목소
리와 눈빛의 형형함에서 오랜
참선으로 쌓은 높은 수행의 경
지가 엿보였다.

**명예박사 학위 취득
임승봉동문**

▲ 임승봉
(97행원·학
교법인 경기
학원 사무처
장 및 서립
장학재단 이
사장) 동문은 중국 지린성 옌볜
대 창설자인 임민호 총장의 씨
쪽으로서 학술문화교류 및 장학
사업에 이바지한 공로로 지난
10월 12일 옌볜대에서 명예 박
사학위를 받고 명예교수로 초빙
됐다.

▲ 10월 4일 오후 1시 연세대
학교 동문회관에서 홍명수(53정
치) 회장의 장녀 혜진양 결혼

▲ 10월 5일 오전 11시 연세대
학교 동문회관에서 김영환(62경
제·본회 부회장·대우 그룹 부
회장) 동문의 장남 정섭군 결혼

▲ 10월 5일 오후 12시 천도교
대교당에서 신재호(61법학·본
회 이사) 동문의 차남 신윤수군
결혼

▲ 10월 19일 오후 12시 30분
소망교회에서 김홍모(66상학·본
회 상무이사) 동문의 장남 김현
준군 결혼

▲ 10월 21일 오전 11시 공항
터미널 3층 컨벤션센터에서 양
정오(81행원·본회 상무이사) 동
문의 장남 양덕진군 결혼

(7면에서 계속)

동녀회 정기총회 주최

안채란회장 연임, 축하패 홍월표동문·감사패 임돈희교수 수상

동녀회(회장=안채란·54국문·본회 부회장)는 지난 12월 19일 11시 모교 계산관에서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개회, 국민의례, 경과보고, 축하·감사패 증정, 회장인사, 토의사항등의 순서로 진행된 이날 행사에서 축하패는 서울시의원으로 있는 홍월표(69법학·본회이사)동문이 받았으며 감사패는 모교 여학생부처상으로 있는 임돈희 교수가 각각 수상했다. 홍월표동문은 다년간 국가와 민족을 위한 새마을운동에 전력하였으며 현재 1995년 빌속된 서울시의회에서 여성의원으로 당선되어 동국여학의 귀감이 되었음을, 임돈희교수는 여학생들의 진취적 학업태도와 건강한 대학생의 인성교육을 위해 학내 인터넷 교육과 다양한 교양강좌의 실시 그리고 사회봉사정신의 함양을 위한 지원봉사 활동의 운영등 여학생을 위해 현신 지도한 것을 치하하여 각각 축하패와 감사패를 수상하게 되었다. 이어



안채란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일세기의 역사와 연륜이 쌓여 세계인의 대학으로 성장 발전하는 모교를 보면서 1963년 3월에 창립된 여학회도 이제는 위상을 달리하고 반성하여 새로운 각오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라고 말한 후 “우리 감칠 맛나는 내일을 맞이할 수 있는 여학 사회가 되도록 과잉보호는 벗어나고 네가지의 시고 짜고 쓰고 아픈 노력으로 내일의 발전을

맞이하도록 노력하자”고 힘수어 말했다. 한편 안채란 동녀회 회장은 후배에게 회장직을 위임하고자 하였으나 회원들의 열광적인 열의와 만류로 회장직 연임이 만장일치로 통과되었다. 이날 동녀회 모임에 참석한 동문들은 같은날 저녁 6시 30분 소피텔 앱베서더호텔에서 열린 제25회 동국인의 밤 행사에 참가해 15만 동국인은 한가족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였다.

재독동문회 정기총회 개최

회장 유영도동문·총무 김현정동문 선출



재독 동대동문회(회장=유영도·65정외)는 지난해 8월 23일부터 25일까지 2박3일동안 Kassel 근교의 Dornberg Jugendhof에서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우선 재독동문회는 95년 유령을 달리한 이원희의 전 동문 회장과 지난해 7월 22일 별세한 이탁(83물리)동문의 명복을 비는 북도의 시간과, 고인들의 생전의 모습을 추도하는 시간을 정기총회 시작에 앞서 가졌다. 이어 열린 정기총회에서는 먼저 공식증인인 동문회장에 그동안 동문회장을 대행해 수고한 유영도동문을 만장일치로 추대하였으며, 총무에는 김현정(83물리)동문이 선출되어 동문회의 길은 일을 맡아 처리하게 됐다. 이어 동문회 결산보고가 어어졌으며 밤 늦은 시간까지 재독 동문회의 활성화 방안에 대해 깊은 토론이 계속되었다. 이 자리에서 신임 유영도 회장은 그간 거의 와해되다시피한 동문

들간의 연락망 복원과 새로운 주소록 작성이 가장 시급한 문제임을 강조하고 이에 대해 동문 각자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또한 앞으로 동문회의 개최일자를 날짜에 관계없이 매년 Pfingsten 기간에 하기로 다시 한번 확인하고 ‘Pfingsten=재독 동대동문회’로 기억해주기를 당부했다. 첫날의 총회 및 토론후에는 그동안 이재일 동문이 보관하고 있던 재독 동국대학교 기를 배경으로 재독동문회 역사에 남길 기념촬영을 하였다. 이를 끝인 24일에는 시내 와 Deutsche Machenstraße의 작은 마을 Sababurg, Bad Soden-Allendorf를 돌아보며 전원의 아름다움을 만끽하였다. 또한 동문들이 정성스럽게 준비한 음식으로 저녁을 함께하며 일과 학업으로 조금은 지쳐있던 몸과 마음을 달랠 수 있었다. 비록 길지 않은 시간의 동문회 모임이었지만 바로 그 짧은 시간을

통하여 지난 세월을 추억하고 앞으로의 미래를 다짐하는 유익한 자리가 되었다. 다음은 이번 재독 동대동문회에 참석한 참석자 명단이다. 최찬기(56법학) 동문 내외, 이재일(60회학)동문 내외, 박영국(61생물)동문 내외, 유영도(65정외)동문 내외, 채규원(82법학)동문, 김현정(83물리)동문, 서경석(87독문)동문 등 11명이다. 김현정 동문은 올해 학위를 취득하여 현지 DESY연구소 beam line 책임연구원으로 근무하고 있다.

한대와 친선 GOLF대회 우호증진·친선도모 목적

모교 GOLF 동문회와 한대 GOLF 동문회에서는 지난 10월 12일 Guiford Golf and Country Club 회원 동문간의 친선 GOLF대회를 가졌다. 이번 대회는 처음 개최되는 행사로서 동문들 간의 우호증진과 친선도모에 큰 목적이 있었다. ◇Gross △1등 김한기(동국)△2등 박창호(동국)△3등 김경구(한양)◇Net △1등 김영하(동국)△2등 김정수(한양)△3등 이우성(한양) .

대장경시리즈 완역

여경원(원장=김성구)은 대장경시리즈 ‘아비달마·대비론·번역판 7, 8권을 끝으로 지난 11월 15일 원본 2책여권을 8권으로 완역했다. 93년부터 여경원 위원인 송성수씨의 번역작업으로 이미 번역판 6권이 나온바 있는 이 책은 소승불교의 철학적 이론을 집대성한 백과사전으로 평가받고 있다.

부산지부 ‘96동국인의 밤’ 성료

동문간의 정 확인하는 흥겨운 자리

부산지부동문회(회장=김상훈·81행원·부산일보 수필전부)는 지난 12월 18일 오후 6시 30분 부산일보 10층 강당에서 ‘96 동국인의 밤’행사를 개최했다. 북은혜를 보내고 새해를 맞으면서 부산지역에 거주하는 동국인이 한자리에 모여 끈끈한 동문의 정을 나누는 이번 행사는 회장인사, 공로패 수여, 내빈축사등의 1부 행사와 연회·민찬의 2부 행사로 진행되었다. 이번 ‘96 동국인의 밤’행사에는 특별히 ‘코리아 이벤트’사 이광

용 단장일행이 참여, 유머와 위트가 넘치는 흥겨운 무대를 만들었으며, 많은 경품과 세밀 선물을 준비하여 참여 동문들의 마음을 뜨겁게 하였다. 또한 부산동문회는 9개 소모임체(동국회, 교직회, 동산회, 경우회, 대학원회, 한의사회, 64회, 농학회, 등산회) 단위별로 월례모임을 개최하고 있다. 5월부터 매월 첫째 일요일에 동국인 등산회에서 금정산을 중심으로 등산모임을 하고 있다.

안산동문회 총회 및 송년의 밤 개최

화합과 우의의 한마당·회칙개정



송년의 밤 행사후 다같이 모여 칠자.

재안산동문회(회장=배관식·63법학)는 지난 12월 10일 안산 소재 크리스탈무페에서 ‘96 임시총회 및 송년의 밤’행사를 성대히 개최했다. 이날 모임에는 70여명의 동문 및 가족이 참석하여 지나온 한해를 정리하며 동문 상호간의 화합과 우의를 다졌다. 97년의 보다 나은 만남을 약속하며 즐거운 하루를 보냈다. 조성규(74무역)동문의 사회로 진행된 1부행사에서는 안산동문회의 발전과 동문간의 우의 향상에 기여한 동문에게 공로패를 수여하였으며 회칙개정 및 정기총회일자 변경의 건

을 처리했다. 회칙개정의 내용을 살펴보면 △제6조 부회장 1인원수에서 현행 5명 ⇒ 약간명, 7인 이내로 개정, △제7조 부회장 선임방법은 현행 총회에서 선출 ⇒ 회장임명제로 개정, △제16조 재부는 1). 잔조금, 2). 기타 수입 ⇒ 1). 회비, 2). 친조금, 3). 기타 수입으로 변경했으며 △정기총회는 매년 4월 26일 ⇒ 연말송년의 밤으로 개정했다. 한편 안산동문회는 지난 10월 13일 궁평리 유원지에서 주제이유회를 갖고 회원들간의 친목과 우의를 다지는 다채로운 행사를 가졌다.

경주동창회 회보 발간

회원간 친목·우의증진 기대

총동창회직할 경주동창회(회장=장제이·89한의·대세당한의원장)는 회원간의 친목과 우의증진을 위하여 동창회보(11월) 장간호 1천부를 발행하여 동문 및 관련단체에 배부했다. 또한 지난 10월 16일에는 총동창회직할 경주동창회와 지역개발대학원 경수능분회(회장=김경오·94지원·경북도의회의원)간의 친선등반대회를 경주 남산 일원에서 개최해 40여명의 동문들이 참석한 가운데 동문간의 결속을 다지는 시간을 가졌다. 등반대회후 열린 토론의 장에서는 양동문화가 ‘동국인의 밤’ 공동개최동 앞으로의 공동사업

전개를 통하여 우의를 더욱 돈독히 할 것을 다짐했다.

벤쿠버 동문회 창립 회장에 박두일동문

모교 벤쿠버(회장=박두일)동문회는 지난 9월 21일 영동회관에서 장립을 위한 제모임을 갖고 ▲회장=박두일동문▲고문·전형숙·김영하동문▲부회장=이덕근동문▲총무=조 건동문을 각각 선임했다. 또한 지난 10월 26일에는 영동회관에서 정기모임을 가졌다. (연락처 : 회장 박두일 980-1940, 총무 조 건 530-5233)

경영대학원 동문회 송년의 밤 성황 더욱 단합된 모습으로 정축년을 맞이하자



경영대학원 동문회(회장=이형집·85경원·대성강관인쇄(주) 대표이사) 송년의 밤이 지난 12월 11일 여의도 63빌딩 컨벤션 센터 2층 국제회의장에서 동문 및 내외인사들 5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거행되었다. 경영대학원 동문회 김운석 사무국장의 사회로 개회, 국민의례, 축하ape·공로포상, 이형집 회장 인사, 모교 송석구 총장 격려사, 황명수 총동창회장 격려사, 구자선(81경원·태우주택 대표이사) 명예회장 격려사 등 1부 행사와 연회, 행운권 추첨의 순으로 진행된 2부 행사는 96년 한해를 보내면서 송구영신하는 동문들의 회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마지막까지 흐뭇한 시간을 보냈다. 이형집 동문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동국대학교 총장 송석구(62철학) 박사님과 총동창회 황명수 회장님, 경영대학원 전 청원 전 원장님을 귀빈으로 모시게 되어 오늘의 이 자리가 더욱 빛나게 되었다”고 하였으며 “항상 모교 발전을 위해 전력을 다하신 교수님들의 노고와 역대회장을 역임하신 선배 회장과 동문들의 노고를 치하하며 특히 96년은 본회 기

금마련 3억원 목표 달성에 전 동문의 적극적인 협조에 감사를 드리고 특히 모교 발전기금으로 현재까지 3억여원을 지원한 사실에 더욱 감사를 드리며, 밝아오는 새해 97년은 새로운 마음으로 동문회가 발전하도록 적극 협조하자”고 역설했다. 송석구 총장은 “경영대학원 이형집 회장과 이순룡 원장을 비롯하여 모교와 동문회가 그 어느 때 보다도 획기적으로 단결되고 발전하는 모습은 동국인의 한 사람으로 학교를 대표하여 찬사와 축하를 드린다”고 하였으며 “특히 앞으로 학교 발전 계획과 후배들의 각종 국가고시와 각 기업체의 취직률 증가로 동국인의 자긍심을 선진화 하고 있다”고 역설했으며 총동창회 황명수 회장은 “경영대학원 동문회의 단합과 회화부 모습이 총동창회의 발전을 유기적으로 활성화하고 있다”고 친사를 보냈다. 이어 구자선 명예회장은 “동문회가 어려웠던 지난날을 굽거나 일어서서 전 동문이 전례없이 6억원의 자신이 될 수 있도록 동문들이 적극 후원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다”고 하였으며, “97년 새해에도 모교와 동문회

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하자”고 하였다. 특히 이번 송년회를 위하여 이형집 회장과 준비위원회 이광세(27기) 부회장이 각각 5백만원, 하만장(36기) 부회장 1백만원, 김문영(38기) 부회장과 김성강(44기) 부회장들 각 기에서 각각 1백만원을 포함한 28명의 동문이 1천9백5십만원의 현금지원과 장송모(57기) 부회장의 이조도요 빙벌백자(300만원상당)를 포함한 이예자(21기) 동문의 민화작품, 김종하(35기) 동문의 고급골프세트, 조동순(17기) 동문의 일기쉬운 부동산 책자 3백여권등 30여명의 동문이 1천5백만원 상당의 후원 행운상품들은 훈수품으로 사용할 수 있는 국내 우수제품으로, 당첨된 많은 동문들의 미움을 흐뭇하게 하였다. 이날 행사에서는 사단법인 밝은가정협의회장으로 사회 사업을 열심히 하면서 학문 탐구에 전력한 조동춘(17기) 동문은 인천대학교 대학원에서 경영학 박사 학위를 취득한 공로와 육군의 군수분야에서 투철한 군인 정신으로 근무한 장희(37기) 동문이 준장으로 진급되어 각각 축하패를 수여하였으며, 그동안 경원동문회 발전에 공이 큰 장송모 이흥근(12기) 하만장 부회장은 동문회 발전은 물론 본인의 회사가 국가 경제에 이바지하는 성실한 경영자로 타의모범이 되어 공로패를 수여하였다. 더욱 흐뭇한 것은 2부 행사에서 오기철(31기) 동문의 재치있는 사회로 초청가수 한세일등 3명과 어여보리 건강체조 등을 포함하여 동문들이 가경과 행운 추첨으로 총 4시간여의 행사를 질서있고 흥미있는 시간을 보내면서 97년 새해에 모두의 건강과 소원성취하기를 빌면서 아쉬운 작별을 하였다.

대구·경북지부 송년의 밤

장학금모금·경주캠퍼스 학생에게 전달



정축년의 힘찬 출발을 위하여!

대구·경북지부(회장=구교
찬·64법학·경북구미경찰서장)
는 지난 12월 10일 오후7시 대
구 파크호텔에서 3백여명의 동

문 및 가족이 참석한 가운데 '96 송년의 밤 행사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송년의 밤과 함께 열린 정기총회에서 구교한 회회장이 재선출되었으며 현임원단도 그대로 유지하기로 결정됐다. 2부에서는 동문들의 뜻을 모아 70만원의 장학금을 모금하여 97년도 경주캠퍼스 학생들에게 전달할 예정이라고 한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신돌연(73법학·총동창회 사무처장), 장수정 전사무처장, 개교90주년기념사업회 홍광표 사무국장이 참석하여 행사를 축하해 주었으며, 황명수 회장이 축하의 꽃다발을, 송석구 모교총장이 금일봉과 함께 행운상품 1점을, 김병기 모교부총장이 행운상품 1점을 각각 혜택하였다. 또한 개교90주년기념사업회에서는 이날 행사에 참석한 전동문들에게 동국시랑 저금통을 나누어 주었다.

국문과 50년의 밤

새로운 각오로 재도약의 선도적 역할 다짐

모교 ‘국문과 50년의 밤’ 행사가 지난 11월 15일 오후 6시 호텔 소피텔 앰버서더 2층 그랜드 볼룸에서 3백여명의 국문과 출신 동문 및 내외귀빈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김갑기(72국문·청주대학교 교수) 동문의 사회로 시작된 1부 행사에서는 황명수 총동창회장 축사, 홍기삼(66국문) 한국어 문학부장 인사, 김정환(60국문) 국문과 동문회장 인사, 김영배(55국문) 교수의 국문과 연혁보고, 이종출(54국문) 교수의 국문과 동문 활동보고, 이병주(50국문) 교수의 축하 및 기념연설과 케이절단, 건배제의의 순으로 진행되었다. 이어 2부에서는 동국문화상 시상식, 자랑스러운 국문인 표창, 그때 그 시절 필름 상영, 모교홍보필름 상영, 발전기금 조성의 순으로 진행되었으며 시부문에서는 조상기(62국문), 소설에서는 심상섭동문이 각각 동국문화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제3부에서는 모교 문화예술대학원에 재학중인 국악인 신영희씨와 김성녀씨의 국악 공연으로 축하의 분위기를 한층 고조시켰다. 모연문에서 모교 국문과 발전위원회장 최재복동문은 “반세기 넘는 세월동안 우

5면에서 계속)

▲12월 8일 오전 11시 30분 서울 올림피아코호텔 1층 올림피아홀에서 안병호(82행원·본회 운영위원) 동문의 자 안규현군 결혼

▲12월 14일 오후 3시 탑웨딩홀에서 신동민(66상학·본회 이사) 동문의 딸 신수진 양 결혼

▲12월 21일 12시 63빌딩 3층 별관 코스모스홀에서 지수구(61경제·본회 이사·고려도요지순탁요업 대표) 동문의 딸 결혼

▲12월 26일 오후 3시 삼성동 공항터미널 3층 예식장에서 조향태(63법학·본회 이사) 동문의 장남 김용근 결혼

▲11월 9일 오후 3시 혜화동 성당에서 김영일(63정의·본회 이사) 동문의 장남 김원표 군 결혼

▲11월 9일 오후 1시 전국경제인연합회관 20층 난초홀에서 성종석(64경제·본회 상무이사) 동문의 장녀 성윤희양 결혼

▲11월 12일 오후 3시 공항터미널 3층 예식장에서 조성운(56경제·본회 운영위원) 동문의 장남 조현칠군 결혼

▲11월 16일 오후 3시 30분 영등포 목회예식장 본관 특설에서 김동원(64정의) 동문의 자 김상영군 결혼

▲11월 25일 오후 12시 30분 잠실 롯데월드 예식장 5층 매실에서 이종훈(59법학·본회 상무이사) 동문의 장남 이식순 군 결혼

부고

▲엄태근(63불교·본회 상무이사)=12월 1일 강남성모병원에서 별세

▲이능희(65상학·본회 상무이사)=12월 2일 삼성의료원에서 부친 별세

▲박종구(65경영·본회 이사)=12월 7일 도친상

▲김희옥(72법학·본회 이사)=12월 9일 부친상

▲이연호(53국문·남양일로에 회장)=11월 12일 오후 6시 삼성시울병원에서 별세

▲정용담(63경제·본회 상무이사·한국투자신탁감사)=10월 25일 오후 4시 별세

▲여환준(71법학)=11월 20일 부친 별세

동국인의 경영능력입증 금정그룹 승진인사

그룹 부회장에 정재호동문, 금정금고부사장에 흥석기동문



정재호동문



흥석기동문

▲정재호(62정외·본회 부회장)동문은 지난 12월 20일 금정그룹 부회장으로 전격 발탁되었다.

정동문은 '94년 대표이사에 취임한 이래 강력한 업무 추진력과 폭넓은 대인관계를 바탕으로 취임 2년만에 금정상호신용금고를 업계 선두로 끌어올린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정통 금융인이다. 주택은행 재직시 정동문은 동경사무소장, 비서실장, 전산부장, 영업부장을 역임하였으며, 90년에는 탁월한 업무추진력을 인정받아 국민훈

장 석류장을 수상하였다. 이번 승진인사에서는 해외 금융업무와 첨단 전산업무에 폭넓은 업무능력을 갖춰 급변하는 금융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경영인으로 평가받아 금정그룹부회장에 발탁되었다. 謂可深而不可疑(생각은 깊게, 실천은 과감하게)라는 좌우명을 가지고 있는 정동문은 업계에서는 노력과 집념이 남달라 불가능이 없는 사나이로 통하며 현재 모교 정치외교학과 동문회장, 본회 부회장으로 정계, 관계, 학계, 경제계에 두루 교분이 있는

마당별이다. 부인 박명숙여사는 사이에 1남 1녀를 두고 있으며 취미는 테니스, 특기는 태권도 8단의 유단자이다.

▲홍석기(68경영·본회 부회장)동문은 지난 12월 20일 금정그룹 승진인사에서 금정상호신용금고 부사장으로 승진됐다. 신임 홍석기 부사장은 신용보증 기금을 거쳐 금정금고 영업부장, 이사, 상무이사를 거쳐 불과 2년만에 영업부장에서 부사장으로 전격 승진한 탁월한 영업통이다. 평소 과묵하고 소탈한 성격으로 금융계에 널리 알려진 홍동문은 직원들에게 신망이 두터운 민족스포츠맨으로 통한다. 한번 믿으면 끝까지 믿고 맡기는 신뢰영업을 기초로 영업신장에 총력을 기울이는 금융계의 보기드문 영업전략가이기도 하다. 정재호 그룹부회장과 함께 금융부문에서 깔끔한 업무처리와 직원화합을 통하여 금정금고가 선두그룹에 진입할 수 있게 한 역할을 크게 인정받아 부사장으로 전격 승진됐다. 부인 김덕희 여사와의 사이에 2녀를 두고 있으며 취미로 골프를 즐긴다.

1997 전자계산 2년과정 신입생모집

1. 도집인원 : 1200명(주·야)

2. 응시자격 : 고등학교 졸업(예정) 이상 학력 소지자
(수능시험과 무관함)

3. 특별전형

- 원서교부/접수기간: 1997.1.27(월)-1.31(금) 09:30-19:00
- 전형방법: 서류전형
- 특전사항: 특별전형에 한하여 전형료 및 입학금 면제.
모집정원의 30%범위내에서 특별전형하며 접수 인원이 초과 할 경우 조기마감할 수 있음.

4. 일반전형

- 원서교부/접수기간: 1997.2.17(월)-2.27(목) 09:00-19:00
(토·일요일도 교부/접수함)
- 전형방법: 서류전형 및 면접
- 면접일시: 1997.2.28(금) (주간 14:00, 야간 18:30)

5. 원서교부/접수처

동국대학교 전자계산원(혜화관6층 교학과)

6. 제출서류

- 입학지원서(본원 소정양식, 반면합판 사진2매) 1부
- 최종학교 졸업(예정)증명서 또는 졸업장 사본 1부

7. 교육과정 특징

- 국가기술자격시험 기사2급 응시자격부여(국가기술자격증 2급 취득 대학졸업학적 녹록학사 시험 4년제 중 2년제 번제)
- 호주 센츄럴 퀸즐랜드 국립대학 컴퓨터공학과 3학년 편입
- 뉴질랜드 링컨 국립대학 컴퓨터공학과 3학년 편입(예정)
- 일본 동북전자계산기 전문학교 유학
- 높은 취업률(97%) 및 전문대학 졸업자 이상의 대우
- 국내 최고 수준의 최첨단 실습교육환경
- 대학 캠퍼스내에 위치한 편의시설

입학문의

TEL: 260-3522~3, 260-3598, 264-0502

FAX: 264-0502, 264-0504

E MAIL: ZIPIDC103@ chollian.dacom.co.kr

온라인통신학교: 천리안 매직콜 GO DUCSI

주소: 100-715 서울특별시 중구 필동 3가 26번지

마당별이다. 부인 박명숙여사는 사이에 1남 1녀를 두고 있으며 취미는 테니스, 특기는 태권도 8단의 유단자이다.

동불 송년의밤 개최

회장에 엄원섭동문 선출



불교대학원 동문회(회장=김성호·93불원)는 지난 12월 10일 오후 6시 남산 티워호텔 신관에서 「동불 송년의 밤」 행사를 가졌다.

이날 행사에는 송석구 모교총장, 목정배 불교대학원 원장을 비롯한 동문 300여명과 재학생들이 참가하였으며 다채로운 행사와 싱그러운 삼시식을 지켜보며 뜨거운 격려의 박수도 아끼지 않았다. 이날 행사에서는 엄원섭(94불원·삼의한의원 원장)동문이 회장에 선출되어 김성호 전회장에 이어 불교대학원동문회를 이끌게 되었다. 한편 불교대학원 동문회 사무실 개관식이 지난 10월 7일 중구 장충동 뉴장충빌딩 5층에서 열려 불교대학원 동문회의 업무를 한 장소에서 일괄처리하여 동문회 업무에 효율을 기할 수 있게 되었다. 이날 행사에는 목정배 불교대학원장, 박원일 전국불교신도회장을 비롯해 1백 50여명이 동참해 함께 축하해 주었다.

1997 전산/정보 경영자과정 (3기)모집

1. 도집인원 : 120명(주·야)

2. 교육기간 : 10주

3. 도집구분/교육기간

구 분	강의요일	강의시간	도집인원
주 간	주2일(화·목)	14:00-17:00	40명(1반)
야 간	주2일(화·목)	18:30-21:30	80명(2반)

4. 도집대상

- 기업체 및 공공기관 경영자, 관리자
- 자영업체 경영자, 관리자
- 공무원, 언론인, 정치인, 군인
- 여성전문직 및 주부

5. 원서교부/접수기간

1997.2.10(월)-2.28(금) 09:30-19:00 (토·일요일도 교부/접수함)

6. 전형방법 : 동별선착순

7. 제출서류

입학지원서(본원 소정양식, 반면합판 사진2매) 1부

8. 원서교부/접수처 : 동국대학교 전자계산원

(혜화관6층 교학과)

9. 교육과정 특징

- 경영자 및 관리자를 위한 최고의 교육환경
- 컴퓨터 초보자를 위한 새로운 차원의 교육
- 비전공자를 위한 이해하기 쉬운 교재
- PC기초에서 멀티미디어, 인터넷까지 실습위주의 수업
- 초고속 통신망(T1)을 이용한 최첨단 컴퓨터시스템
- 최고의 전문교수진 및 실습강사에 의한 개인지도
- 586 Multimedia PC를 이용한 1인1대의 철저한 실습교육

“전산/정보에 강한 자만이 세계를 지배할 수 있다!”



21C정보화 사회를 주도하는 22년의 전통

동국대학교 전자계산원

회비를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간: 1996. 9. 1~96. 12. 31〉

- ▣ 알림 ▣

 1. 회비 명단은 가
나다순.
 2. 회비납부시, 성
명·졸업년도·
학과를 필히 명
시해 주십시오.

◇고문회비	▲박용학(65경제)=20	▲이주형(65경제)=10	▲권오덕(83경원)=20	▲김완하(88한의)=20
(단위:만원)	▲박철동(69법학)=20	▲이형표(92행원)=10	▲권오웅(90지원)=20	▲김용각(89경원)=20
▲문태식(49사학)=200	▲박충환(59경제)=20	▲이화인(70법학)=10	▲권재칠(87경원)=20	▲김용규(92지원)=20
▲박진희(52경제)=200	▲서성래(63농생)=20	▲이황우(67경행)=10	▲권준명(85임학)=20	▲김용길(59법학)=20
계=400만원	▲신영남(67물리)=20	▲이홍남(65정외)=20	▲권창호(60경제)=20	▲김용단(62법학)=20
◇지도위원 회비	▲유광진(64정외)=20	▲장명근(64법학)=10	▲권택돈(87회계)=20	▲김용래(95경영)=20
(단위:만원)	▲윤법안(95불원)=20	▲장봉현(72경행)=10	▲김강녕(77정외)=20	▲김용범(88건축)=20
▲권노갑(53경제)=30	▲윤행순(65행정)=20	▲장성일(69상학)=10	▲김경자(74국문)=15	▲김용수(농경)=20
계=30만원	▲이능희(65상학)=20	▲장위상(67일원)=10	▲김경호(70경행)=20	▲김용연(74학원)=20
◇부회장회비	▲이무정(63정외)=20	▲장학길(70식공)=10	▲김관수(66행정)=20	▲김용오(71행원)=20
(단위:만원)	▲이상윤(60정외)=20	▲정대진(63법학)=10	▲김관수(65법학)=20	▲김용태(73경제)=20
▲구자선(81경원)=100	▲이윤심(79행원)=20	▲정선모(66임학)=10	▲김광길(78행정)=20	▲김용환(72경영)=20
▲김재기(60경제)=50	▲조희영(63경영)=20	▲정준호(81행정)=10	▲김광해(78간축)=20	▲김워일(63경제)=20
▲김제국(61경제)=200	▲천동춘(63정외)=20	▲조국형(62정외)=10	▲김광식(86경원)=15	▲김운재(83경원)=20
▲김훈기(61정외)=50	▲한보광(75불교)=20	▲조현수(64농경)=10	▲김광진(89의)=20	▲노창희(69법학)=20
▲박광도(65불교)=100	▲허상구(79경원)=20	▲진점덕(63정외)=10	▲김교섭(75경영)=20	▲노경택(92경제)=20
▲박완일(61불교)=100	▲황승민(63상학)=20	▲차현천(82정외)=10	▲김근석(95법학)=20	▲노영철(93경원)=15
▲박익주(61정외)=100	계=580만원	▲채남술(70법학)=10	▲김기환(68법학)=10	▲누영환(73교분)=20
▲오진모(61법학)=50	◇이사회비	▲최마제(61영문)=10	▲김남중(78행원)=20	▲노준래(83경원)=20
▲우순이(60정외)=200	(단위:만원)	▲최무정(66임학)=10	▲김남태(82국문)=20	▲노창희(69법학)=20
▲유월탄(68불교)=100	▲강두석(69경영)=10	▲최영태(77행원)=11.5	▲김달수(72상학)=20	▲노상열(58수학)=20
▲이두철(90지원)=200	▲강신호(72법학)=10	▲최용관(64상학)=2	▲김동근(84경제)=20	▲노상집(64국문)=20
▲이무웅(67불교)=200	▲강형철(68상학)=10	▲최원두(81경원)=10	▲김동완(71여역)=15	▲류영희(83경원)=20
▲장형식(60정외)=100	▲권기종(64불교)=10	▲하진수(65정외)=10	▲김동찬(82식공)=20	▲류자연(78행정)=20
▲홍석기(68경영)=100	▲권재환(65법학)=10	▲한상태(88경원)=10	▲김동혁(경원)=20	▲류혜숙(76사교)=15
계=1,650만원	▲권호선(75정외)=10	▲홍근영(72행정)=10	▲김만수(84승가)=20	▲문경연(81경원)=20
◇지역담당부회장회비	▲김대용(67경제)=10	▲홍순필(71경제)=10	▲김만진(87경원)=20	▲문동호(71화학)=15
(단위:만원)	▲김병훈(60국문)=10	▲홍치유(63불리)=10	▲김명길(74공경)=15	▲문석홍(59농생)=20
▲김삼용(56불교)=100	▲김상목(60국문)=10	▲홍수영(70경제)=10	▲김명선(75경원)=20	▲문을식(86인철)=20
계=100만원	▲김세영(58법학)=10	▲권호선(75정외)=10	▲김정우(68정외)=20	▲문인우(80경원)=20
▲김수광(65철학)=10	▲김대용(67경제)=10	▲총계=768만원	▲김동근(86전산)=20	▲문창모(63사학)=15
▲김승웅(72경영)=10	▲김원식(61정외)=10		▲김인범(87산공)=20	▲문효근(80국문)=20
◇운영위원회비	▲김익상(65법학)=10		▲김재만(68정외)=20	▲문희웅(75행원)=20
(단위:만원)	▲김정환(60국문)=10		▲김명석(55법학)=20	▲문희창(61경제)=20
▲김진찬(62법학)=100	▲김종옥(64철학)=10		▲김재원(73농경)=20	▲민동원(68여연)=20
▲박동열(78행정)=100	▲김창환(67경영)=10		▲김명호(89한의)=20	▲민병덕(81경영)=20
▲안보순(91행원)=100	▲김충남(70행정)=10		▲김무생(65영연)=20	▲민오남(94행원)=20
▲이기화(59경제)=100	▲김현표(55정외)=10		▲김정수(82경원)=20	▲미희원(82무역)=20
▲조성운(56경제)=100	▲김효성(64법학)=1.5		▲김정인(83행원)=20	▲박경준(77불교)=20
계=600만원	▲평화섭(81행원)=10		▲김병도(86영문)=20	▲박광린(71경영)=20
▲박준익(61법학)=10	▲박병우(78경행)=100		▲김병설(63경제)=20	▲박광순(71정외)=20
▲박해준(61경제)=10	▲박승정(63경제)=10		▲김병윤(경원)=20	▲박광옥(50영문)=20
▲백영길(64법학)=10	▲백영철(73정외)=10		▲김병은(94행원)=15	▲박광원=20
▲박준익(61법학)=10	▲백정기(64경영)=10		▲김병택(77국문)=20	▲박균영(5.3)=2.0
▲박해준(61경제)=10	▲석혜광(63영문)=10		▲김병학(68법학)=20	▲박기생(69법학)=20
▲백영길(64법학)=10	▲선상규(72영생)=10		▲김보현(78불교)=20	▲박동안(93경원)=20
▲이재혁(68불교)=20	▲송재운(64철학)=10		▲김세경(91경원)=20	▲박두호(67경행)=20
계=20만원	▲신래호(61법학)=10		▲김진치(65정외)=15	▲박득곤(80경행)=20
◇분과위원회비	▲신현조(84교원)=10		▲김총구(84토목)=20	▲박봉기(81경행)=20
(단위:만원)	▲안명근(69농학)=10		▲김태원(73물리)=20	▲박봉준(85경제)=50
▲이재현(68불교)=20	▲오상홍(58법학)=10		▲강해성(77전기)=20	▲박상규(61국문)=20
계=20만원	▲유재선(70농경)=10		▲강홍규(91회계)=10	▲박상욱(경원)=20
◇상무이사 회비	▲유정우(63법학)=10		▲고영균(91경제)=20	▲박석윤(86경영)=20
(단위:만원)	▲윤정진(75법학)=10		▲고재석(79국문)=20	▲박선현(83행원)=20
▲김낙천(81행원)=20	▲이경수(57영문)=10		▲고재찬(73무역)=15	▲박선호(75경영)=20
▲김보현(93불원)=20	▲이동철(73경영)=10		▲고훈원(62법학)=20	▲박성만(85수학)=15
▲김복철(62정외)=20	▲이명선(74농학)=10		▲고희권(95경영)=10	▲박성훈(92지원)=20
▲김성은(67행정)=20	▲이병화(61경제)=10		▲공장기(80행원)=15	▲박성희(경제)=10
▲김영하(58정외)=20	▲이석우(67행정)=10		▲곽관현(82경원)=20	▲박수봉(83경원)=20
▲김용모(59경제)=20	▲이영흡(79경원)=10		▲곽성운(84한의)=20	▲박순원(89행원)=20
▲김정화(64경제)=20	▲이윤근(81경행)=10		▲권기원(87농경)=20	▲박승복(95의학)=20
▲김홍모(66상학)=20	▲이영숙(67행정)=10		▲권능모(85사발)=20	▲박승희(76행원)=15
▲박삼선(55법학)=20	▲이영흡(79경원)=10		▲권각종(84경원)=20	▲박양학(82경원)=20
▲박영상(79경원)=40	▲이윤근(81경행)=10		▲권감순(70행원)=20	▲박연도(71법학)=15

▲ 손양찬(52경제)=15	▲ 유성규(73임학)=20	▲ 이수택(76행원)=20	▲ 임성주(82전기)=20	▲ 정학주(72법학)=20
▲ 손일환(94지원)=20	▲ 유승룡(83건축)=20	▲ 이순영(79경행)=20	▲ 임세영(56경제)=20	▲ 정현영(61법학)=20
▲ 손채익(90한의)=20	▲ 유승희(72경영)=20	▲ 이승호(66화학)=20	▲ 임수철(95회계)=20	▲ 정현옥(81경원)=20
▲ 송광열(74사학)=20	▲ 유영록(80전자)=20	▲ 이신백(75농학)=20	▲ 임영빈(82수학)=20	▲ 정호기(86한의)=20
▲ 송기원(74무역)=20	▲ 유영식(82미술)=20	▲ 이신자(76행원)=20	▲ 임영환(71농학)=15	▲ 조경진(84체교)=20
▲ 송동근(82경원)=50	▲ 유은상(80무역)=20	▲ 이신철(63법학)=20	▲ 임유연(83경영)=20	▲ 조규진(94경원)=20
▲ 송동휴(52정외)=15	▲ 유정복(87법학)=20	▲ 이양우(66경제)=20	▲ 임종규(69정외)=20	▲ 조남현(80무역)=20
▲ 송성환(68경제)=20	▲ 유정웅(89행원)=20	▲ 이영숙(74국문)=20	▲ 임종배(67식공)=20	▲ 조남훈(68임학)=20
▲ 박이룡(90경원)=20	▲ 송세희(72은생)=20	▲ 유해인(행원)=20	▲ 이영식(71법학)=20	▲ 조동순(83경영)=20
▲ 박재귀(73무역)=20	▲ 송승만(66국문)=20	▲ 유혜자(64국문)=20	▲ 이영열(76정외)=30	▲ 조동열(60국문)=35
▲ 박재용(60영문)=20	▲ 송영훈(86산공)=20	▲ 유홍배(74국문)=20	▲ 이영인(94경원)=15	▲ 조득현(81통계)=20
▲ 박재현=20	▲ 송일호(82경제)=20	▲ 유홍기(54국문)=20	▲ 이영호(86경원)=40	▲ 조래광(93경원)=20
▲ 박재현(91지원)=20	▲ 송주호(96국문)=20	▲ 윤경덕(63임학)=20	▲ 이용기(69통계)=20	▲ 조병덕(87회계)=20
▲ 박재호(88연경)=20	▲ 송창립(75행정)=10	▲ 윤경숙(91한의)=20	▲ 이용대(62경제)=20	▲ 조병호(81일원)=20
▲ 박방규(76경행)=20	▲ 송태일(85행원)=20	▲ 윤경원(76식공)=100	▲ 이용식(74법학)=20	▲ 조상원(60사학)=15
▲ 박방용(53사학)=20	▲ 신국주(48불교)=20	▲ 윤경현(62철학)=20	▲ 이우중(66농학)=20	▲ 조성묵(79국문)=20
▲ 박방정우(94산원)=20	▲ 신년수(65경제)=15	▲ 윤규하(75경제)=20	▲ 이원우(91지원)=20	▲ 조성우(행원)=20
▲ 박종석(연영)=20	▲ 신동화(65식공)=20	▲ 윤기인(72상학)=20	▲ 이원호(72경원)=20	▲ 조승환(89회계)=20
▲ 박종열(83국문)=20	▲ 신민철(96경원)=15	▲ 윤대일(63경제)=20	▲ 이윤종(59법학)=20	▲ 조영운(64법학)=20
▲ 박종호(60정외)=20	▲ 신팔업(90행원)=20	▲ 윤재한(83임학)=20	▲ 이은섭(64경제)=20	▲ 조영찬(83건축)=20
▲ 박주영(84불리)=20	▲ 신법철(62불리)=15	▲ 윤정중(89행정)=15	▲ 이인수(83경원)=20	▲ 조용근(69경영)=20
▲ 박준서(74경영)=20	▲ 신상철(74경영)=20	▲ 윤종락(65상학)=20	▲ 이인순(61화학)=20	▲ 조용자(92행원)=20
▲ 박진만(83건축)=20	▲ 신용현(86한의)=20	▲ 윤종원(87한의)=20	▲ 이일현(70불리)=20	▲ 조재현(84토목)=20
▲ 박진범(연영)=20	▲ 신용호(87체교)=15	▲ 윤채중(77경영)=20	▲ 이장걸(62사학)=20	▲ 조진석(82사교)=20
▲ 박진우(87불리)=20	▲ 신은하(91행원)=60	▲ 윤홍섭(72상학)=20	▲ 이장수(69임학)=15	▲ 조철현(70농학)=20
▲ 박진호(69경영)=15	▲ 신정철(67경영)=15	▲ 윤희태(89행원)=15	▲ 이장우(90한의)=20	▲ 조환운(65상학)=50
▲ 박전영(80행원)=20	▲ 신태환(67법학)=20	▲ 이갑훈(67불교)=20	▲ 이재수(87경원)=20	▲ 조효동(93무역)=20
▲ 박전일(74식공)=20	▲ 신현성(85일원)=20	▲ 이강부(82경원)=20	▲ 이재우(84경원)=20	▲ 주락효(86경원)=20
▲ 박춘재(64경영)=20	▲ 심병기(60법학)=20	▲ 이기강일(79경영)=20	▲ 이재호(81경영)=15	▲ 주법중(78농학)=20
▲ 박처복(60정외)=15	▲ 심상우(86경영)=20	▲ 이경렬(88행원)=20	▲ 이재희(92행원)=20	▲ 지영남(82화학)=20
▲ 박태성(74임학)=15	▲ 심연태(경원)=20	▲ 이경린(61사학)=20	▲ 이정길(78경원)=20	▲ 지용진(87경행)=20
▲ 박태완(68임학)=20	▲ 심재명(92지원)=15	▲ 이경일(82경원)=20	▲ 이정섭(89법학)=20	▲ 진도중(64경제)=20
▲ 박학도(73무역)=20	▲ 심재용(69상학)=20	▲ 이경희(71법학)=20	▲ 이정일(66사학)=20	▲ 진인성(71경제)=20
▲ 박학호(73무역)=20	▲ 심형식(59법학)=20	▲ 이관무(74통계)=20	▲ 이정해(88회계)=20	▲ 진상호(91지원)=20
▲ 박학호(92지원)=20	▲ 심형식(59법학)=20	▲ 이광준(93정외)=20	▲ 이종규(88경영)=15	▲ 진숙현(66정외)=20
▲ 박희삼(87일원)=20	▲ 안경배(82불리)=20	▲ 이기운(57경제)=20	▲ 이종단(86경원)=15	▲ 차용길(69철학)=20
▲ 박희선(62화학)=15	▲ 안경수(63상학)=20	▲ 이기규현(85한의)=20	▲ 이종수(92경원)=20	▲ 차용덕(76식공)=20
▲ 박희익(65상학)=20	▲ 안기승(63법학)=20	▲ 이기규현(85한의)=20	▲ 정경호(73농학)=20	▲ 차장환(91경원)=20
▲ 방두원(82법학)=20	▲ 안기원(73무역)=15	▲ 이기균(95선학)=20	▲ 정광균(95선학)=20	▲ 차정진(91경원)=20
▲ 방주석(66불교)=20	▲ 안명관(81통계)=20	▲ 이기창(92전자)=15	▲ 정광호(94경영)=15	▲ 차지영(61생물)=20
▲ 방현규(79건축)=20	▲ 안문화(55영문)=20	▲ 이길수(88경원)=20	▲ 정광호(89상학)=20	▲ 차현섭(94경원)=30
▲ 배경구(86경영)=15	▲ 안병민(82전산)=15	▲ 이근우(65불교)=20	▲ 정기범(70법학)=20	▲ 채환경(77체교)=20
▲ 배시중(92무역)=20	▲ 안병민(72토목)=20	▲ 이근형(경원)=20	▲ 이주영(82경원)=20	▲ 천사녕(91행정)=20
▲ 배웅영(84전산)=20	▲ 안성원(92경원)=20	▲ 이기건(80행정)=20	▲ 이준복(93행원)=20	▲ 초육걸(85한의)=20
▲ 배인연(91법학)=20	▲ 안승균(63경제)=15	▲ 이기창(92전자)=15	▲ 이준희(85전산)=20	▲ 최균(65경제)=20
▲ 배정숙(78승가)=20	▲ 안영근(61불교)=20	▲ 이낙원(95정외)=20	▲ 이중웅(64임학)=20	▲ 최건환(73국교)=20
▲ 배필수(82경원)=20	▲ 안용준(52정외)=30	▲ 이더근(89전산)=30	▲ 이진우(89법학)=20	▲ 최경순(77정외)=20
▲ 백대승(86영문)=20	▲ 안재호(87한의)=20	▲ 이덕수(79법학)=20	▲ 이진호(72농경)=15	▲ 최관호(94경원)=20
▲ 백영재(64국문)=20	▲ 안종관(79통계)=20	▲ 이돈혁(94전산)=20	▲ 이창재(71법학)=20	▲ 최규식(49불교)=20
▲ 백준기(연영)=20	▲ 안홍철(89수교)=20	▲ 이동철(경원)=20	▲ 이창현(84국문)=20	▲ 최병국(80불리)=20
▲ 백형중(경원)=20	▲ 안희백(78토목)=35	▲ 이린진(62법학)=20	▲ 이채곤(89전산)=20	▲ 최병설(75행정)=20
▲ 변영결(49문학)=20	▲ 양성일(71경제)=15	▲ 이명숙(78국문)=20	▲ 이재옥(64정외)=20	▲ 최상기(92영문)=20
▲ 변종국(6/경세)=50	▲ 양원식(62국문)=20	▲ 이명인(85한의)=50	▲ 이정준(71경행)=20	▲ 최상선(82교원)=20
▲ 부만근(77행원)=15	▲ 양태실(63화학)=20	▲ 이무일(92지원)=20	▲ 이태경(67통계)=20	▲ 최성안(57사학)=20
▲ 서건석(65상학)=20	▲ 어재식(75무역)=20	▲ 이문희(71임학)=20	▲ 이필구(72농경)=20	▲ 최성호(89법학)=20
▲ 서기필(85무역)=20	▲ 염금수(74행원)=20	▲ 이문화(89한의)=20	▲ 이한규(82경원)=20	▲ 최순열(72국문)=20
▲ 서둔식=20	▲ 염정국(80통계)=20	▲ 이범규(85산공)=20	▲ 이해갑(농경)=20	▲ 최승구(65법학)=20
▲ 서동부(93지원)=20	▲ 여정안(79건축)=20	▲ 이범준(62경제)=20	▲ 이현호(73공경)=20	▲ 최승현(88일문)=20
▲ 서동호(66법학)=15	▲ 여학도(87한의)=20	▲ 이병구(53정외)=20	▲ 이현우(87경원)=20	▲ 최영길(52영문)=20
▲ 서민석(93경원)=20	▲ 연민수(84사학)=20	▲ 이병길(72화학)=20	▲ 이현정(83연영)=15	▲ 최영남(70법학)=20
▲ 서승갑(70법학)=20	▲ 연병탁(72행원)=20	▲ 이보명(65농생)=20	▲ 이현중(61영문)=20	▲ 정영욱(85경영)=20
▲ 서용원(65법학)=20	▲ 예종철(79건축)=20	▲ 이봉석(85경원)=20	▲ 이혜근(90회계)=20	▲ 정옥현(89경원)=20
▲ 서인석(87한의)=20	▲ 오관지(74철학)=20	▲ 이상구(65경제)=20	▲ 이호건(79행원)=20	▲ 정용길(70경원)=20
▲ 서재만(61국문)=20	▲ 오세인(72영문)=20	▲ 이상구(87행원)=20	▲ 이호봉(89회계)=20	▲ 정용방(86건축)=20
▲ 서재영(88국사)=20	▲ 오원배(79미술)=20	▲ 이상근(95중문)=20	▲ 아호영(경원)=20	▲ 정용주(82행정)=20
▲ 서자희(69경영)=20	▲ 오윤록(92행정)=30	▲ 이상봉(87산공)=20	▲ 이홍근(80경원)=20	▲ 정용훈(67법학)=20
▲ 석경봉(경원)=20	▲ 오재찬(87회계)=20	▲ 이상설(71정외)=20	▲ 이홍우(80체교)=15	▲ 정윤훈(60법학)=15
▲ 석상훈(93사회)=20	▲ 오재희(89회계)=20	▲ 이상운(78경영)=20	▲ 아환섭(78경행)=20	▲ 정인출(89경원)=20
▲ 선종운(67행정)=20	▲ 오정수(64임학)=20	▲ 이장운(59법학)=20	▲ 이홍규(63경제)=20	▲ 정자홍(58영문)=20
▲ 선주선(80불교)=20	▲ 오정희(72경영)=40	▲ 이아상윤(95사학)=20	▲ 이홍우(66농경)=20	▲ 정장식(62경제)=15
▲ 설자욱(88한의)=20	▲ 은준섭(경원)=20	▲ 이아상윤(경원)=20	▲ 이희경(72경행)=20	▲ 정재구(70통계)=20
▲ 성금순(88회계)=20	▲ 와~의(85한의)=20	▲ 이아상일(78경영)=20	▲ 이희원(92경원)=20	▲ 정재달(64경영)=20
▲ 성기호(65상학)=20	▲ 우성천(91행원)=20	▲ 이아상일(71식공)=15	▲ 임석(65상학)=15	▲ 정종철(83전산)=15
▲ 성영석(71경영)=20	▲ 우승환(78경제)=20	▲ 이아상원(88회계)=20	▲ 임영(74농학)=15	▲ 정주화(87한의)=15
▲ 성경기(51정외)=20	▲ 우정희(96중문)=20	▲ 이아새배(70식공)=20	▲ 임광숙(73행정)=20	▲ 정증식(82공경)=20
▲ 성정용(90사회)=20	▲ 워영만(92서한)=30	▲ 이서홍(여영)=20	▲ 임병석(83회계)=20	▲ 정지웅(73경제)=20
▲ 손덕승(88화학)=20	▲ 유공규(83경원)=20	▲ 이성열(61정외)=20	▲ 임상길(91정외)=20	▲ 주교정(65국문)=20
▲ 손성균(88회계)=20	▲ 유상동(77정보)=20	▲ 이수근(91지원)=20	▲ 임상문(91지원)=20	▲ 주돌석(75경영)=20

(11면으로 이어짐)

법5회, 년6회 정기모임 돈독해 지는 우의 확인



금일봉 전달후 강동문과 회장이 악수하고 있다.

좌측부터 김시영 회장, 강홍민 동문, 태기업 총무.

법5회는 57년 법과를 5회로 졸업한 동문들의 모임으로서 년6회 모임을 갖는 것과 동문가정의 애경사시는 반드시 전원 참석을 원칙으로 하는 것이 특색이다.

그동안 영면하는 동문이 하나 둘 늘어나 난감할 때가 많았다고 한다.

특히 법5회는 법과 출신답게 법부부 산하 기관에 근무한 동문들이 많으며 95년을 마지막으로 전부 정년을 맞이하였다. 김시영 회장은 "식도락을 즐기는 동문들과 함께 건강위주로 등산과 교외 나들이 활동이 많은 우리 모임은 나이가 하나 둘 늘어갈수록 우리들의 우의는 더욱 돈독해 지는 것 같다"고 했다.

지난 96년 8월 모임에는 과주에서 농장을 경영하는 강홍민 동문의 별장에서 모임을 갖고 수해를 입은 강동문에게 회원들의 정성을 모아 금일봉을 전달하고 위로한바 있다.

71동법회 송년모임 개최 회원간의 친목과 안부 확인

71동법회(회장=이태운)는 지난 12월 14일 저녁 6시 금터식당에서 송년모임을 가졌다. "모두가 바쁜 일과 속에서도 회원간의 친목과 안부를 확인하기 위해 참석하여 준 회원들에게 감사한다"는 회장의 인사로 시작된 이날 행사는 특히 부산고검에 근무하는 서진규 1호검사가 부산에서 참석하였고 광주광역시 북구청에 근무하는 최윤호동문이 참석하였다. 또한 중소기업경 종합소매업과에 근무하고 있는 고세진동문은 25년만에 참석하여 행사를 더욱 빛나게 하였다. 그리고 그동안 모임에 열성을 보여준 보야국 대표 김성호동문, 인천예식장 대표 김상학동문, 밀라노베이커리 하남무화점 대표 이상무동문은 회장의 고맙다는 인사와 함께 감사의 선물을 받았다.

교원 업적평가 실시 우수교원의 선정 및 지원에 큰 영향력 행사

교원의 체계적인 관리와 연구 분위기 활성화를 위해 올해 처음으로 교원업적평가가 실시된다. 교원업적평가 규정 제1장 제1조에 의하면 교원업적평가 결과는 교원의 승진, 임용, 재임용 및 정년보장 심사의 기초 자료로 활용될 것이며 전체일정은 지난해 3월 1일부터 올해 2월 말까지 개인연구업적 중심으로 진행된다. 또한 교육업적, 연구 및 창작업적, 봉사 및 기업업적 등 세분야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이것은 단과대학 교원업적평가위원회의 심의 및 평가 기초자료로 이용된다. 결국 평가자료는 우수교원의 선정 및 지원에 막대한 영향력을 미치게 되고 이와 동시에 승진, 재임

용, 연구비 지급등 교수의 연구 활동 영역과 앞으로의 진로에 커다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번 평가는 교육여건 조성과 교육연구의 실적 향상이란 취지에도 불구하고 모교 교수들 사이에서는 '형식에 치우친 연구조장' 이란 여론도 일고 있다. 지난 11월 28일 90주년 기념문화관에서 교수회주최로 열린 '교수설문 조사보고 및 토론회'에서 연구업적평가제 설문조사 결과보고에서 총 1백 83명의 응답자중 96%가 연구업적평가제를 알고 있으며 그 가운데 80%의 교수들은 이것을 '형식에 치우친 연구조장'이라 답했으며 그외 16%가 '연구의 욕을 더욱 고취시킨다'며 연구

업적평가에 대한 인식을 보였다. 이러한 여론에 대해 사회과학대학의 한 교수는 "발표한 논문의 수가 적다고 해서 그 교수가 연구를 소홀히 했다고 볼 수는 없다"며 "논문을 발표할 학회지에도 등급을 매겼다는데 같은 글을 A등급의 학회지에 발표하면 A등급의 논문, C등급의 학회지에 발표하면 C등급으로 구분하는 것이 올바른 평가라 생각하지 않는다"며 이의를 제기했다. 한편 처음으로 시행하는 만큼 예상치 못하게 야기될 문제점에 대해 연구교류처의 한 관계자는 "1년내내 전체적인 여론 수렴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이제에 대한 의견교환에 있어 충분한 논의를 했다"고 밝혔다.

납골 공원묘지 조성 계획

가족 대대로 한곳에 유골함을 안치할 수 있는 국내 최대의 납골 공원묘지가 조성된다. 모교 송석구 총장은 지난해 9월 18일 "선진국형 화장문화 정착과 효율적인 국토관리원에서 경기도 양평군에 확보한 부지 50만평에 빠르면 98년 납골가족묘지공원을 착공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모교가 조성기로한 영탕공원(기침)에 최대 257기의 유골함을 한곳에 안치할 수 있는 가로 1.5m · 세로 1.5m의 영탕(유골함 합동안치탕) 20여만기가 수용된다. 이는 최소 4백 여만기의 묘지를 대체할 수 있는 규모다. 6백만~1천만원을 내고 영탕 한기를 분양받을 경우 4인가족 기준으로 최대 4대 조상까지 영탕 한기에 안치할 수 있다.

또한 묘지 주변에 추모공원, 어린이 놀이시설, 사찰등 각종 편의 부대시설도 갖춰 공원화할 예정이다. 모교가 삼성경제연구소에 의뢰한 국내 묘지 실태 연구 결과에 따르면 매년 약 20만기의 묘지가 급증, 한해 2백 50만평 정도의 땅이 임시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특히 매장묘가 점유중인 땅은 남한 총면적의 1%, 국토 총택지 면적(1천9437평방km)의 절반이 넘는 9백70평방km나 되는 실정이다. 또 분묘 한기당 평균 면적은 94년 기준으로 약13평에 이르러 국민 한사립당 주택면적(4.3평)의 3배가 된다. 모교는 그러나 기존의 묘지를 영탕공원으로 재개발할 경우 기존 묘지 면적의 10분의 1 정도면 모두 수용이 가능하다고 분석했다.

<10면에서 계속>

- ▲ 추병복 (65영문) = 20
- ▲ 추용엽 (90지원) = 20
- ▲ 추용주 (70정외) = 20
- ▲ 수현숙 (경원) = 20
- ▲ 하건수 (90경원) = 20
- ▲ 하근수 (71법학) = 20
- ▲ 하원만 (74경영) = 100
- ▲ 하종대 (59정외) = 20
- ▲ 하학길 (64국문) = 20
- ▲ 한강택 (78경행) = 20
- ▲ 한동근 (58경제) = 20
- ▲ 한상의 (74경행) = 20
- ▲ 한상두 (93지원) = 20
- ▲ 한양수 (66국문) = 15
- ▲ 한우현 (94경원) = 20
- ▲ 한종열 (85법학) = 20
- ▲ 한찬홍 (82공경) = 20
- ▲ 한창섭 (89경원) = 100
- ▲ 한창호 (70경행) = 20
- ▲ 합형률 (82경원) = 20
- ▲ 허광일 (82행정) = 20
- ▲ 흥건표 (60법학) = 20
- ▲ 흥기영 (83화공) = 20
- ▲ 흥대의 (88전산) = 20
- ▲ 흥복원 (76경원) = 20
- ▲ 흥사진 (62국문) = 20

- ▲ 흥석표 (82경영) = 20
- ▲ 흥성훈 (71경영) = 20
- ▲ 흥영준 (65불교) = 20
- ▲ 흥원일 (72경제) = 20
- ▲ 흥윤표 (89한의) = 20
- ▲ 흥인경 (93국문) = 20
- ▲ 흥종섭 (73행원) = 20
- ▲ 흥태식 (89경영) = 20
- ▲ 흥태표 (60국문) = 20
- ▲ 황운육 (92지원) = 20
- ▲ 황의만 (55경제) = 20
- ▲ 황의안 (55경제) = 20
- ▲ 황재춘 (90행정) = 20
- ▲ 황학구 (90지원) = 20
- ▲ 황한균 (58물리) = 20
- ▲ 황형선 (90미술) = 20

총계=15,725,000원

◇장학기금

(기간: 1996. 9. 1~1996. 12. 31)

- ▲ 강경남 (95미술) = 10
- ▲ 강신호 (72법학) = 100
- ▲ 강진치 (65정외) = 50
- ▲ 권혁제 (95한문) = 20
- ▲ 김광근 (82영문) = 100
- ▲ 김동길 (61정외) = 200
- ▲ 김동수 (79행원) = 30

- ▲ 김수기 (65경제) = 100
- ▲ 김용수 (농경) = 100
- ▲ 김은구 (63정외) = 50
- ▲ 김종일 (58법학) = 300
- ▲ 김종호 (80수화) = 50
- ▲ 김한성 (91한의) = 100
- ▲ 김호근 (61사학) = 50
- ▲ 남병국 (64법학) = 100
- ▲ 남희주 (93경제) = 20
- ▲ 문동호 (71화학) = 20
- ▲ 민창식 (81토목) = 300
- ▲ 박봉준 (85경제) = 100
- ▲ 박선영 (65불교) = 100
- ▲ 박영삼 (64경제) = 50
- ▲ 박유경 (86정외) = 50
- ▲ 박효웅 (80행원) = 20
- ▲ 송완식 (81승가) = 100
- ▲ 심원선 (77사학) = 20
- ▲ 안영근 (61불교) = 20
- ▲ 유제원 (94경영) = 10
- ▲ 유홍기 (54국문) = 20
- ▲ 윤경원 (76식공) = 1,000
- ▲ 이근식 (60사학) = 10
- ▲ 이상봉 (87산공) = 100
- ▲ 이상연 (94불원) = 50
- ▲ 이상현 (70경행) = 20
- ▲ 이석용 (58정외) = 1,000
- ▲ 이윤심 (79행원) = 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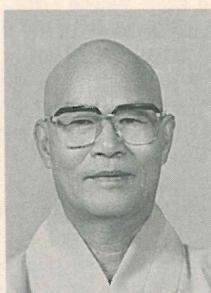
- ▲ 이창근 (76체교) = 50
- ▲ 이춘성 (77행원) = 30
- ▲ 이한성 (66불교) = 100
- ▲ 이혜자 (65국문) = 20
- ▲ 이환섭 (78경행) = 20
- ▲ 이환의 (70법학) = 500
- ▲ 임애란 (86가교) = 10
- ▲ 장근석 (86물리) = 10
- ▲ 전윤수 (95중문) = 20
- ▲ 전인성 (71경제) = 30
- ▲ 정재호 (62정외) = 100
- ▲ 정찬교 (79무역) = 100
- ▲ 정학수 (72법학) = 100
- ▲ 정현찬 (80농경) = 20
- ▲ 조민성 (89국문) = 10
- ▲ 조정구 (84무역) = 100
- ▲ 조창원 (57경제) = 300
- ▲ 최근 (65경제) = 100
- ▲ 최라석 (65경제) = 100
- ▲ 최안웅 (70경제) = 20
- ▲ 최용관 (64상학) = 1,000
- ▲ 최창열 (60정외) = 30
- ▲ 한정숙 (90영문) = 10
- ▲ 현창삼 (94경원) = 100
- ▲ 흥근영 (72행정) = 100
- ▲ 흥인경 (93국문) = 20

총계=757만원

도서 보내기 협찬동문

- ◇ 고정남 (68경제)
- ▷ 최고의 인생을 위하여=2권
- ▷ 예수님이 찾은 사람들=2권
- ◇ 김판태 (67경영)
- ▷ 사바세계=24권
- ◇ 신상성 (70국문)
- ▷ 한국통일문화사론=10권
- ▷ 당신도 소설가가 될수 있습니다=20권
- ▷ 한국단편평작선 (1)=50권
- ▷ 한국단편평작선 (3)=20권
- ▷ 재미있는 여행 기공술=10권
- ▷ 초록빛 파도=25권
- ▷ 모닥불=10권
- ▷ 당신을 사랑함으로 하여=60권
- ▷ 나를 씻기소서 내가=70권
- ◇ 강민 (56국문과)
- ▷ 돈도 명예도 사랑=1권
- ▷ 끊어진 한강교에서=1권
- ▷ 아메리카(상, 하)=1권
- ▷ 투우=1권
- ▷ 그 세월의 뒤=1권

신년사



동국학원 이사장 오록원

97년은 미래지향적인 대학위상 정립의 해

15만 동국인의 화합과 결속으로 동국발전의 원동력 제고

대망의 정축년 새해를 맞이하여 부처님의 가호로 우리 동국의 무궁한 발전과 동국대학교 동문 여러분에게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지난해 우리 동국대학교에서는 개교 90주년을 맞이하여 다채로운 기념행사와 학교 발전을 위한 다양한 노력이 결집된 해로서 특히 동국발전기금이 300억원에 육박하는 커다란 성과를 올린

것은 우리 전체 동국가족의 적극적인 동참과 성원으로 아오며, 특히 본교를 졸업하신 동문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후원에 대하여 충실히 경의와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밝아오는 새해에도 우리는 지속적으로 대학의 양심과 학문적 자존을 제고하고 학사행정의 개선과 내실을 기함은 물론 21세기를 내다보는 미래지향적인

대학의 위상을 정립하고, 통일 시대를 대비한 세계 중심대학으로 발전하기 위하여 전 동국인이 혼연일체가 되어 동참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홍명수 총동창회장님을 비롯한 15만 전체 동문 여러분들은 사회 각계각층에서 크게는 국가와 사회를 위하여 작게는 자신의 위상과 발전을 위하여 눈부시게 활약하고 있음을 볼

때 이는 모교의 영예를 드높이고 있는 노력과도 일치하는 것으로서 매우 마음 든든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처럼 우리 동국의 동창회와 재단 그리고 학교가 「동국 발전」이라는 하나님의 목표를 위해서 융화하고 단결한 것도 드물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화합과 결속의 기운이 성숙되고 그 힘이 거듭 동국발전의 원동력으로 승화되기를 기대하면서 새해에는 모쪼록 동국가족 여러분에게 부처님의 자비광명으로 더욱 뜻깊고 보람찬 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교육개혁 추진 최우수 대학으로 선정 모교 위상 제고 계기 마련



모교전경

년 1백 13개 대학중 23개 대학을 분야별 우수대학으로 선정하여 최고 13억원등 총3백여억원을 나누어 지원하기로 했다. 한편 이번 평가 결과에 대해 중앙대와 서울대를 비롯한 여러 대학에서는 크게 반발하고 나섰으며 중앙대의 경우 10월 29일 교육개혁관련 설명자료를 제작해 평가 방법이 객관적이지 못했음을 조목조목 주장했다. 또한 이번 평가로 인해 우수대학으로 선정되지 못한 대학이 더욱 도태될 것이라는 우려도 표현했다. 이러한 반발에 대해 한국 대학교육 협의회의 한관계자는 "중앙대의 주장도 타당하지만 평가의 객관성을 문제삼는 것은 옳지 않다"고 밝히며 "동국대학교의 경우 '학생선발'과 '열린교육체제의 제도적 기반구축'은 △졸업학점 허향조정△전공필수 폐지△학부제 도입등의 다양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교육개혁 추진 우수대학 평가는 지난 95년 5·31 교육개혁안 발표 이후 전국 각 대학이 추진하고 있는 교육개혁의 상황을 평가하여 장려한다는 취지 아래 진행되었다. 교육부는 평가서를

되었다. 1위로 선정된 '교육정상화를 위한 학생선발', 교육개혁 내용을 살펴보면 △특차모집 정원 50%로 확대 △소년소녀가장 선발△장애인 선발등이며 '열린교육체제의 제도적 기반구축'은 △졸업학점 허향조정△전공필수 폐지△학부제 도입등의 다양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교육개혁 추진 우수대학 평가는 지난 95년 5·31 교육개혁안 발표 이후 전국 각 대학이 추진하고 있는 교육개혁의 상황을 평가하여 장려한다는 취지 아래 진행되었다. 교육부는 평가서를

성과 항목	개혁 후	개혁 전
특차모집확대	정원 50%로 확대	정원 20%내
특기자 범위확대	분야 확대	체육, 문화부문
소년소녀가장선발	4명	-
농어촌학생선발	정원 3%로 확대	정원 2%
특수교육대상자	10명	전과목 총점제
내신성적교과영역	수험생 4과목선택 5등급 절대평가	- △15등급 상대평가제
내신성적비교과영역	점수화 반영	-
면접고사	점수화 반영	가부만 결정

〈학생선발부문의 성과항목〉

분당 한방병원 개원 지하2층·지상5층 규모 32개 병실 1백개 병상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에 모교 한의과대학 부속 분당한방병원(원장 이종성)이 지난해 10월 11일 개원했다. 한방병원으로는 수도권 지역에 처음인 분당한방병원은 지하 2층·지상 5층 규모로 32개 병실과 1백개 병상을 갖추고 있다. 진료과목은 한방내과·부인과·소아과·침구과·재활의학과·신경정신과·아비인후과 등이다. 이밖에 각종 질환을 전문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중풍클리닉과 체질개선·산후풍·통증·비만·재활·피부미용클리닉 등 다양한 보양클리닉 프로그램이 마련돼 있다. 진료시간은 평일 오전 9시~11시 30분, 오후 1시~4시 30분, 토요일은 오전 9시~낮 12시 30분이며 일요일은 응급실 외엔 접수를 받지 않는다. 진료예약과 함께 환자가 원할 경우 의사를 지정해 진료받을 수도 있다.

월하 종정예하·정우스님 동국발전기금 기탁

대한불교 조계종 월하 종정에 하는 학교법인 동국학원 오록원 이사장에게 동국발전기금으로 써 달라고 지난 12월 4일 금일봉을 보내왔다. 종정 큰스님은 이날 구룡사 주지 정우스님을 통해 이 기금을 전달하면서 "조계종립 동국대학교 이사장 록원스님과 송석구 총장의 대학발전의지로 나들이 위상이 높아지고 있다. 모든 종도와 사부대중들도 동국발전이 곧 불교발전이라고 생각하고 깊은 관심과 성원이 있기를 바랍니다"고 격려했다.

이날 기금을 전달받은 이사장

경주(비전! 동국 100년)후원의 밤 성료 발전기금 53억4천만원 조성

〈비전! 동국100년〉후원의 밤이 지난 12월 12일 경주 현대호텔 컨벤션홀에서 오록원 이사장, 송석구 총장을 비롯한 홍명수 총동창회장을 비롯한 내외인사 1천 2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이번 행사는 원효스님의 열이 깃든 경주에서 2006년 동국백년을 바라보며 민족대학으로서의 위상을 확고히 하기 위한 전 동국가족과 불교인들의 의지가 하나됨을 확인하는 자리였다. 화려한 레이저쇼를 시작으로 MBC아나운서 최창섭(74경행) 동문과 유하영(연행4) 양의 공동사회로 진행된 1부 행사에서는 △삼귀의례스송석구 총장 인사말△이사장 치사△황명수 총동창회장 축사△외국인 축

사 △발전기금 약정자 인터뷰△〈비전! 동국100년〉 사업계획 발표△사홍서원△만찬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이어 치뤄진 2부행사는 코미디언 김형곤(85국교) 동문의 사회로 △국악과 공연△약정결과 발표등의 순서로 치뤄졌다. 이날 송총장은 인사말을 통해 "100주년을 앞둔 본교가 최고의 교육·연구 기관으로 발전하기 위해 모든 동국가족들이 새로운 다짐으로 거듭나는 계기를 마련하자"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경주캠퍼스 앞 7백평부지와 5천만원상당의 상경대 교육용 기자재가 기증되었고 53억4천만원의 기금이 조성되었다. 한편 서울캠퍼스는 지난 5월 서울에서 열린

정각원(원장 이도업·불교학)은 지난 11월 19일 오후 4시에 불국사 설조 주지 스님을 초청하여 교직원 정기법회를 가졌다. 매번 1백여명의 교직원들이 참석하고 있는 정기법회의 취지는 "부처님의 자비" 정신을 이땅에 구현하고 본 대학의 건학이념을 선양하기 위해서라고 정각원측은 밝혔다.

정각원(원장 이도업·불교학)은 지난 11월 19일 오후 4시에 불국사 설조 주지 스님을 초청하여 교직원 정기법회를 가졌다. 매번 1백여명의 교직원들이 참석하고 있는 정기법회의 취지는 "부처님의 자비" 정신을 이땅에 구현하고 본 대학의 건학이념을 선양하기 위해서라고 정각원측은 밝혔다.

신년사



총장 송석구

丁丑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지난해에는 우리나라가 정치적으로 4.11總選이 있었고, 경제적으로는 OECD에 가입하는 등 다양한 노력이 있었지만 대체로 국민경제가 어려움을 겪은 한 해였습니다.

다행히 우리 東國大學校에서는 개교 90주년을 맞이하여 뜻 깊은 기념사업을 다양하게 전

21세기, 3대명문 사학으로 도약위한 기획 청사진 마련 학문적위상 극대화·학사행정 내실화 주력 15만 동국인의 화합과 협조로 동국발전 기대

개하였으며 특히 東國發展을 위한 〈비전! 동국 100년〉 '後援의 밤'을 서울과 경주에서 개최하여 많은 동국가족 여러분의 지대한 관심과 성원으로 130여원에 기까운 모금 성과를 올리게 된 점은 매우 획기적인 일이라 생각하며 이에 동국인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이율러 우리가 統一時代를 대비하여 世界의 中心大學으로 雄飛하고자 하는 愿願에서 일산에 건설하려는 尖端科學캠퍼스 및 佛敎綜合病院의 건설 사업이 소정의 敷地 買入등의 절차를 거쳐 가시화 되고 있는 점이나, 참사람 열린 교육이라는 지표

이래 최선을 다한 결과 教育改革 優秀大學 評價에서 종합 1위를 차지한 점, 그리고 학교의 제반 시설을 개보수하여 教育環境을 광범하게 개선한 점들은 매우 괄목할 만한 성과로 자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밝아오는 새해에도 전 東國인의 지혜를 모아 우리 동국에서는 90년 民族私學의 긍지와 전통을 사기하면서 21世紀 世界化, 情報化時代를 준비하는 中·長期發展計劃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아가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本校에서는 開校 100周年이 되는 2006년까지 우리 대학을 한국의 3대 名門 私學으로 도약시키기 위한 획기

적인 기획과 청사진을 마련하고 있으며, 시대에 부응하는 新敎育制度를 도입하여 21세기에 적응할 수 있는 인재양성에도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大學의 改革과 發展은 결코 어느 한 개인이나 몇 사람의 힘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宗團과 財團, 同窓會 등 모든 東國人 여러분의 和諧과 協助, 그리고 구성원 여러분의 헌신적인 노력과 뜨거운 東國愛로서만 더욱 加速化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난해 東國發展을 위한 後援事業에 동문 여러분이 전폭적으로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와 경의를 표하면서 새

해에도 「東國發展」이라는 하나의 목표 아래 모처럼 이룩된 재단과 학교 그리고 동문이 삼위 일체가 되고 있는 이 회합과 협조의 기운이 그대로 동국발전의 원동력으로 승화되기를 기원해 마지 않습니다. 대학의 變化와 改革은 이제 時代的 社會의 當爲가 되고 있습니다. 본인은 거듭 우리 대학의 학문적 위상을 극대화하고 학사행정을 내실화하는데 주력함은 물론 東國이 발전하는 길이라면 身命을 다 비칠 각오가 되어 있으나 새해에도 뭇가 달라지고 있는 대학, 가장 큰 가능성을 가진 우리 대학의 미래를 함께 기울여 보면서 동국 사랑과 동국 발전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를 간절히 당부 드립니다. 새해, 부처님의 가호로 東國大學校 總同窓會의 무궁한 발전과 동국가족 여러분의 가정에 健康과 幸運이 함께 하기를 축원합니다.

총학생회 정·부회장 선거

서울캠·회장 구장주·부회장 원진욱
경주캠·회장 최진호·부회장 정해영
당선

서울캠퍼스 제29대 총학생회 정·부회장후보로 나선 구장주(야간경영4)·원진욱(사학4) 조가 51.8% 투표율에 찬성 78.86%로 당선되었다. 단선으로 치뤄진 이번 선거는 지난 11월 15일 학생회관 1층 로비에서 진행된 개표결과 총유권자 1만1백14명중 5천2백47명이 투표해 지난해 56.27%투표율보다 낮은 51.86%로 △찬성 4천1백38명(78.86%) △반대 8백92명(17%) △무효 2백17명(4.14%) △오차 4(0.076%)의 집계로 당선이 확정됐다. 또한 12대 총여학생회 단독 후보로 나선 김인영(사학

2)·홍미리(화학2)조도 총 60.42%의 투표율에 83.89%의 찬성으로 당선됐다. 총학투표와 동시에 개표가 진행된 총여학생 선거는 총유권자 3천1백23명중 1천8백87명이 투표에 참가해 60.42%의 투표율과 투표참가자 가운데 1천5백83명(83.89%)이 찬성했다.

한편 경주캠퍼스 제14대 총학생회 선거가 지난 11월 28일 치뤄진 결과 최진호(전산3)·정해영(국경3) 조가 당선됐다. 58.7%의 투표율을 보인 이번 선거 결과를 살펴보면 총 유권자 5천6백95명 가운데 3천3백45명이 투

표를 했으며 이중 편성구(정보3)·야법현(철3) 조가 1천3백65표를 최진호·정해영조가 1천7백93표를 얻어 최진호·정해영조가 당선됐다. 이번에 당선된 최진호·정해영조의 공약사항은 △학부제 문제 해결방안 제시△도서관 개선△교육의 질적향상을 위한 제도 마련△스마스타 플랜 확보△재단 전입금 확보등이다. 이번 제14대 총학생회 선거는 선거기간중 등록서류 분실, 제13대 총학생회장을 비롯한 중선위 위원들의 집단사퇴등 여러 문제점을 드러낸 채 마무리 됐다.

또한 당선된 최진호·정해영조는 운동권 학생회를 비판하는 등 비운동권을 주장하고 있어 새로 시작되는 총학생회의 사업 방향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컴퓨터 교육원 개원식

정보화 시대에 부응하는 인력 배출

모교 컴퓨터 교육원(원장=홍영식·컴퓨터공학) 개원식이 지난 10월 29일 개교 90주년 기념문화관 컴퓨터 실습실에서 송석구 총장을 비롯한 교직원과 학생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컴퓨터 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95년 7월에 설립된 컴퓨터 교육원은 기존의 PC 386/SX 1백12대를 퀼티엄급 PC로 교체하고 PC-페널 등 시청각 기자재를 확보하고 있는 한편 각 실습실에 LAN 공사를 시행했다. 현재 혜

화관, 개교 90주년 기념문화관 등 7개의 건물에 총 10개의 컴퓨터 실습실이 있으며 PC 4백 53대 중 4백25대가 캠퍼스 LAN에 접속되어 교육과 연구에 활용되고 있다. 컴퓨터 교육원의 학과계자는 "컴퓨터 실습실을 사용하는 강좌가 증가하고 있고, 재학생들의 리포트 작성과 인터넷 사용등 컴퓨터 사용 요구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며 "실습실의 추가증설 등 수준높은 교육·연구 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기원학사문제 장기화 학교측 장·단기계획 마련

기원학사 문제가 장기화될 전망이다. 지난 11월 28일 기숙사생들과 학교측과의 협상지리가 마련됐으나 어떠한 합의점도 찾지 못한채 결렬됐다. 이에따라 기원학사 사태 해결을 위한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손정일·불교4)는 앞으로도 불상앞에서 '수행도당 기원학사 시수와 불교대학 장기적 발전대책수립'을 촉구하는 용맹전진'봉행을 계획적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현재, 학교당국은 종임승기대의 기원학사 부지반환 요청을 지난 11월 25일 접수한 상태로, 이후 대책회의를 거쳐 단기적, 장기적 대안을 기숙사생들에게 제시했다. 학교측은 이 자리에서 불교학부 학생을 위한 임대주택을 마련해 제3캠퍼스 건립전까지 거주시키는 것과 97년도 이후에는 기원학사 신입생 선발을 불가능하는 등의 단기적인 대책과 일산에 대규모 기숙사 건립이라는 장기적인 대책등의 내용을 전달했다. 이에 비상대책위원장은 "학교측은 지금까지도 대책

동국청소년 연극영상제 개막

작품 창작행위·경험기회 제공

청소년 연극 영상인 발탁을 위한 「동국청소년 연극영상제」가 지난해 10월 26일 모교 예술극장에서 개막됐다. 모교가 개교 90주년을 맞이하여 개최하는 이번행사는 미래의 문예예술계 기둥이 될 청소년들에게 연극 및 영화에 대한 관심을 높여주고 작품 창작행위를 실제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신설됐다. 특히 2006년에 맞게되는 모교 개교 1백주년과 연계, 준비위원회(위원장=신영섭·연극영상학부 교수)까지 구성, 지속적인 연극영상제로 꾸민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이 행사는 연극의 경우 공연시간 1시간 내외의 작품중 학생 및 교사의 창작극이나 발표된 희곡이 우선 심사대상이고, 영상의 경우는 16mm 필름이나 VHS로 만든 20분내외 작품이면 출품이 가능하다. 특히 개인상

수상지의 경우 모교를 지원할 경우 입학시 특전도 부여된다.

장학금 전달

5명에게 각 50만원씩

권오철 교수 기념 장학회 장

학금 전달식이 지난 10월 16일 경상대 학장실에서 열렸다. 장학생은 △윤부원(경제4) △김용정(경제3) △정현순(야간경제4) △강희문(야간경제3) △선우민(일반대학원 경제학과) 이상 5명에게 각 50만원씩 지급됐다. 고 권오철 교수의 미망인 강숙자 여사가 기증한 1억원의 장학기금은 기금의 연간 이자수익 50%를 장학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는 적립 운용한다.

교내 주차 유료화 시행

작년 11월 4일부터 30분에 1천5백원

총무처(처장=염준근)가 교내 주차문제 해결방안으로 지난 11월 4일부터 주차유료화를 실시함에 따라 교내차량이 큰폭으로 감소했다. 한편 주차 유료화와 관련해 제13대 야간강좌 총학생회 김선문 당선자는 총무처측에 '통일광장에 오후5시까지 주차를 금지할것'과 '직장인 학생들에게 무료주차권을 발급할 것'

을 요구했다. 이에 총무처 오광진 계장은 "학내차량을 최소화하기 위해 교수, 직원, 강사 등 모든 주체들이 주차요금을 내는데 소수의 편의를 위해 무료주차권을 요구하는 것은 쉽게 납득할 수 없다"며 "학생들도 주차유료화에 나같이 협조해줄 것"을 당부했다.

교수연구업적 2집발간 학생들의 강의선택에 도움기대

연구교류처(처장=임기중·국문화) 연구부는 모교 교수들의 1994, 1995년도 연구업적을 집대성한 「교수연구업적」 제2집을 발간했다. 91, 92, 93년도 교수들의 단행본 및 논문 발표한 것을 정리한 「교수연구업적」 1집에 비해 2집은 94, 95년 2년간의 연구활동이 대폭 늘어 쪽수도 증가했으며 대학 사회에서 연구가 중심이 되는 전반적인 여건의 변화를 적으로 보여주는 자료로 출간된 것이다. 한편 「교수연구업적」 제2집은 1천2백권을 출판하여 교수 개인 연구 실과 학과 사무실에 배포했으며 학생들의 강의 선택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치외교학과 동문회 '96정기총회 개최

신임회장에 정재호 선임



새로운 출발을 축하합니다.

정치외교학과 동문회는 지난 해 9월 16일 프레지던트호텔 수 벨트홀에서 동문 3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96정기총회를 개최했다. 박익주(61정외·본회 상근부회장)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10년동안 동문회를 대과없이 오늘의 정외과 동문회를 있게 하여준 선배를 비롯한 동문 여러분의 감사를 드린다. 우리 정치외교학과 동문회가 발전할 수 있게 하여준 모든 영예는 존경하는 선배동문께, 공훈은 후배동문께, 잘못된 책임은 본인이 다 안고 가겠다"고 하여 선 후배간의 끈끈한 정과 신의를 느끼게 하였다. 박회장은 또한 "신임회장 결정에 대하여 많은 생각과 고심 끝에 그동안 가까이 이서 늘 대하여 본 결과, 현 시점에서 동문회를 위해 필요한 분은 인품으로나 대인관계면에서 정재호 동문이 적격이며 정외과 동문회를 더욱 발전시키고 활성화시킬 수 있다고 확신한다.

앞으로 새로운 회장의 취임과

동시에 오히려 제가 할 때보다 부족한 걸 보완하고 서로 도우며 동문애를 발휘하여 주기 바란다"고 하여 많은 박수를 받았다. 이어서 만장일치로 추대된 제8대 정재호 신임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여러모로 부족한 저를 만장일치로 지지해주신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국회의원도 장관도 아닌 기업체 대표를 정치외교학과 동문회장으로 주인해 주신데 대하여 더욱 동문회장 역할에 최선을 다하라는 뜻으로 받아들이겠다. 우리 중국대학교는 미래지향적인 대학으로 발전할 것이다. 특히 정외과 출신의 현역 정치인들이 다수 있고 이를 동문회와 접목시켜 최대한 발전의 기틀을 마련하겠다. 비록 저는 정치는 하고 있지 않지만 지난 30여년간 금융기관에서 인맥과 조직을 관리하여 왔기 때문에 이를 동문회에 연결시켜 활용한다면 새로운 면모를 기진 동문회로 정착되리라 굳게 믿는다. 앞으로 선배님들은 후배를 위하여 격려와

적극적인 협조를 하여 주시면 후배들은 이를 받들어 동국의 정기를 이어 나갈 것이다. 선후 배 동문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리며 정외과 동문회의 새로운 장을 열어갑시다"라고 신임회장로서의 결의에 친 표부를 베풀었다. 축사를 통해 최형우(63정외·신한국당 고문) 동문은 "지금까지 정외과 동문회를 이끌어 온 박익주 회장님께 감사드리며 제가 평소에 인간적으로 잘알고 살아가는 바탕이 끈질기고 진실성 있고 무엇이든지 책임을 지고 최선을 다하여 혼신적으로 일하는 정재호 동문회장의 취임을 축하드린다. 제 자신 하나님의 철학과 미래에 대한 꿈을 가지고 새도문 이장표에도 전하고 이를 향하여 달리고 있으며 결과는 하늘의 뜻에 따를 것"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당당하고, 멋있게 동국의 남아나운 결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며 축사를 맺었다. 이어 연단에 오른 신순범(61정외·전 국회의원) 동문은 "박익주 전 회장의 수고와 정재호 신임회장에 축하의 말씀을 드리며 4선 의원에서 5선으로 가는 길목에 정치적인 좌초를 하였지만 이대로 본인이 꺼질 수는 없기 때문에 마음의 준비를 가지고 새도문 출발을 하고자 하오니 동문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린다"고 하였다.

이어서 새로운 사업계획 및 동문회 활성화에 대한 다각적인 토론으로 모두가 동참하는 동문회로 발전하자는 결의와 함께 정기총회를 마쳤다.

동문이 합격하여 모교의 사고 고시 기름을 해결했다. 사법고시 합격자는 94년 이후 3년만에 배출된 것으로 1차 합격자 14명 중 4명이 합격해 모교의 위상을 재확인 하는 계기가 되었다. 고시지도교수 이순용(58법학) 교수는 "고시생의 오랜 노력이 결실을 맺어 동대인으로서 매우 기쁘다"고 말했다. 한편 이법호(93행정) 동문도 행정고시에 합격하는 영광을 안았다.

교환학생 파견

3개대·11명 선발

학술교류부(부장=이원부)는 지난 11월 18일 학교성적, 이용 어 테스트, 면접 등을 통해 용곡대 교환학생 3명을 선발했다. 선발자 명단은 이세호(일문2), 김현호(일문3), 임성욱(인도불교 석사과정) 등으로 내년 3월경 일본 용곡대로 파견된다. 한편 해외행정연수 신청자 8명이 본교 와 자매협정을 맺은 미국 하와이대학과 미시간주립대학에 7주에서 8주간 어학연수 차 각 4명씩 파견된다. 연수기간은 하와이대학 97년 1월 4일부터 2월 28일까지, 미시간주립대학은 97년 1월 8일부터 2월 28일까지로 겨울방학을 이용하여 이뤄지는 것이다.

사법고시 4명 합격

행정고시 1명 합격

제38회 사법고시에서 김기일(85법학), 정강대(85법학), 이병선(92법학), 김철완(96법학)

청주지회 송년모임 성황

동문들의 적극적 참여로 한층 발전된 동문회 기대

청주지회(회장=이범숙·68법학)는 지난 12월 13일 청주 로얄 호텔에서 동문 및 가족등 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송년모임을 성대히 열었다. 1부 행사에서 이회장은 "97년은 개인과 동문회 모두 더욱 발전하는 한해가 되기를 기원하며 그동안 동문여러분의 협조에 감사한다"고 말했다. 전연에 의한 격려사에서 홍명수(53정치) 본회 회장은 "지금 모교는 제2의 도약기를 맞이하고 있다. 일산 제3캠퍼스 부지 매입, 동국발전기금 270억 모금, 우수 학교 선정등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며 앞으로도 동문여러분의 성원을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김종욱(75행정) 동문의 사회로 진행된 2부 행사에서는 동문장기자랑등 다채로운 행사로 시종 화목하고 즐거운 분위기 속에서 3시간동안 계속되었다. 이번 행사는 최종태(61법학·청주문화방송(주) 이사) 충북지부회장, 이범숙회장, 안민동(82조직관리) 전임회장, 김태호(68농학) 회원이 성금을, 김진화(68경행), 이규성(68정외), 안민동회원이 선물을 증정하였다. 이번 송년모임은 이회장의 열성적인 추진과 동문들의 적극적인 동참으로 지난 한해를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며 흐뭇한 시간을 보냈다.

행원동문회 이사회 개최

회칙변경·장학기금마련 계획수립



행정대학원 동문회(회장=박익주·61정치·본회 상근부회장)는 지난 10월 25일 오후 7시 타워호텔에서 '96년도 후반기 이사회를 개최했다. 박이주 회장, 정용길 행정대학원장등 30명의 임원들이 참석한 이날 행사는 주요 논제는 사무국장의 전반기 주요행사보고, 동문동정, 자금현황, 연락 및 강조사 등 업무보고와 기타안건등이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회칙상 규정없이 참여한 「행정대학원 학적을 가졌으나 석사학위를 취득하지 못한 동문」들을 준회원으로 행정대학원 동문회에 참여토록 하는 '96년도 정기총회의 결의사항을 다시한번 확인하고, 장학기금모금, 조기제작 활용, 년말 동문의 반등에 대해 토론했다.

인천지부 송년의 밤

유기동동문 공로패수상·단결과 결속강화



97년에도 앞날이 밝기를…

인천동문회(회장=탁언복·64법학·천하종합건설(주) 부사장)는 지난 12월 6일 오후 6시 30분 이상용(61국문) 동문등 40여 명의 인천 거주 동문들이 참석한 가운데 인천 수립공원 7층 연회장에서 송년의 밤을 개최했

동국인은 한마음

「제13회 동국인 체육대회」 개최

총동창회(회장=황명수·53정 치) 주최·지역개발대학원 동문 회(회장=이두철·90지원) 주관 「제13회 동국인 체육대회」가 지난해 10월 13일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6시까지 5백여 동문과 가족들이 참석한 가운데 모교 경주캠퍼스 체육관에서 성대히 개최되었다. 이번 동국인 체육 대회에는 서울 총동창회, 경주 직할동창회, 대구지부, 포항지부, 부산지부, 대전지부, 광주지부, 울산지부, 지역개발대학원 및 재직동문회 등 총 10개팀의 전국각지의 동문들이 경기에

국사랑은 우리들의 가슴속에 큰 기쁨으로 남을 것"이라고 말한 후 "2006년이면 개교 1백주년을 맞이하는 현 시점에서 우리는 학교와 재단, 학생과 교수, 그리고 동문에 이르기까지 모든 동창회 참여주체가 하나로 통쳐 민족의 주역으로 교육국과 국가사회 발전을 주도한 총동창회와 모교의 새로운 위상을 정립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본 체육대회 참가자들은 배구, 줄다리기, 줄넘기 등에서 승패에 관계없이 시종일관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열성적으로



이번에는 꼭 우승해야지!

참가해 승패에 관계없이 즐거운 하루를 보냈다. 이두철 지역개발대학원 동문회장은 대회사에서 "과거 시대적 소명과 굳센 의지로써 지금의 동국과 동국인을 지켜왔듯이 다가오는 새 시대에는 기일증 많은 노력과 남 다른 희생으로써 새로운 동국과 동국인의 신화를 창조하자"고 말한 후 이번 동국인 체육 대회가 우리 15만 동국인의 현 위치와 미래의 청사진을 좀 더 선명하게 그려볼 수 있는 좋은 만남의 장, 뜻깊은 동국인의 한 마당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어 황명수 총동창회장은 "지혜의 체육, 자비의 실천, 불 퇴의 정신, 세기지로 진야될 수 있는 동국정신이 우리 15만 동국인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친 것처럼 본 체육대회로 승화된 동

경기의 임했으며 팔씨름 및 제 기차기와 부부가 학탁이 되어 행한 윷놀이 등이 함께 열려 동문 가족들의 친목을 다지는 장도 마련되었다. 이날 종합우승은 지역개발대학원 동문회(회장=이두철·90지원), 종합준우승은 포항지부동문회(회장=김진구), 종합3위는 경주직할동창회(회장=장제익·89한의·대세당한의원 원장)가 각각 차지했다. 한편, 대회 하루전인 18일 저녁에는 「동국인 체육대회 전야제」가 경주 코오롱호텔 야외 대연회장에서 화려하게 진행되었다. 김재근 지역개발대학원 동문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행사에는 원로 각지의 1000여명의 동문과 교직원 및 가족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회, 국민의례, 내빈 및 동국인 가족 소개, 골프대회 시

상식, 공로패 수여식, 이두철 지역개발대학원 회장 환영사, 황명수 총동창회장 격려사, 오록원 재단이사장 축사, 송석구 총장의 축사, 최형우 동문 축사등 1부 행사와 2부 연회순으로 진행되었다. 특히 이번 전야제 행사에서는 경주캠퍼스 국악과의 연주가 40여분 동안 이어져 우리것의 소중함과 흥겨움을 행사장에 모인 동문 및 가족들과 함께 느낄 수 있었다. 한편 사전행사로 오전 10시부터 경주 보문 컨트리클럽에서 치뤄진 골프대회에는 14개팀 60여 동문이 참가해 동문상호간의 우의와 친목을 더욱 둑돋히 하였으며 전야제 행사종 시상식을 가졌다. 전야제 행사종 황명수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모교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동문 여러분의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하여 할 최선의 일은 서로를 화합하고 격려하는 것"이라고 한 후 "오늘의 행사가 우람한 만난 동문들간의 우의 증진은 물론 모교와 동국애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동국발전에 대한 각자의 역할을 새롭게 생각할 수 있는 뜻깊은 자리가 되길 진심으로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축사에서 최형우 동문은 "4·19혁명과 민주화 운동은 동국대학교와 동국대학교 출신들이 주도하고 앞장서 왔다. 교육이 바로서야 나라가 바로 선다. 동국대가 바로서야 이 나라가 바로서고 더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제14회 동국인 체육대회는 부산지부(회장=김상훈·81행원·부산일보 주필전무)가 맡아 행사를 준비·주관한다.

골프대회 수상자

▲최우수상	도호섭농문
▲우수상	장주복동문
▲준우승	이상진동문
▲2위	권석종동문
▲버디상	박의주동문
▲파상	이종윤동문
▲롱게스트상	김승준동문
▲리어리스트상	김진수동문
▲메너상	황용득동문
▲행운상	서정희동문

뜨거운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제13회 동국인 체육대회」 협찬자 명단

- ▲강병국(68농경)=3만원
- ▲공진식(61경제)=1십만원
- ▲구교찬(64법학)=2십만원
- ▲구자선(81경원)=2십만원
- ▲구자정(64상학)=2십만원
- ▲권상국(73경제)=2십만원
- ▲권석충(70정외)=2십만원
- ▲김건식(58정외)=3만원
- ▲김동원(64정외)=1십만원
- ▲김동정(57법학)=2십만원
- ▲김명철(75경제)=1십만원
- ▲김부성(83경원)=1십만원
- ▲김상도(65상학)=2십만원
- ▲김성태(79행원)=1십만원
- ▲김영환(62경제)=2십만원
- ▲김용길(65법학)=1십만원
- ▲김재기(60경제)=2십만원
- ▲김재진(63경제)=2십만원
- ▲김재국(61경제)=2십만원
- ▲김태영(85경원)=2십만원
- ▲김현권(71경제)=5만원
- ▲단창오(75행원)=1십만원
- ▲대동협=2십만원
- ▲류주형(57농학)=50만원
- ▲박선영(65불교)=1십만원
- ▲박유경(58정외)=1십만원
- ▲박은규(61정외)=2십만원
- ▲박종윤(59경제)=1십만원
- ▲박준형(63경제)=2십만원
- ▲박태권(75정외)=2십만원
- ▲박현싱(75행원)=2십만원
- ▲선진규(59불교)=2십만원
- ▲성순경(95불원)=1십만원
- ▲손상출(84행원)=2십만원
- ▲송석구(62철학)=2십만원
- ▲송석환(68농경)=2십만원
- ▲안보순(91행원)=1십만원
- ▲안종진(59영문)=1십만원
- ▲안채란(54국문)=2십만원
- ▲안철환(68경제)=1십만원
- ▲양정오(81행원)=1십만원
- ▲오록원=2십만원
- ▲우순이(60정외)=2십만원
- ▲유근창(50문화)=2십만원
- ▲유월탄(68불교)=2십만원
- ▲유종희(65농경)=1십만원
- ▲유현복(49국문)=3만원
- ▲이강식(93불인)=5만원
- ▲이기화(59경제)=2십만원
- ▲이덕만(83경원)=1십만원
- ▲이동철(73경영)=5만원
- ▲이두철(90지원)=7백2십만원
- ▲이무영(71행정)=1십만원
- ▲이상배(74법학)=1십만원
- ▲이석용(58정외)=2십만원
- ▲이제곤(68경제)=2십만원
- ▲이형진(85경원)=2십만원
- ▲이화일(65상학)=2십만원
- ▲장상준(65법학)=2십만원
- ▲전순표(57농학)=2십만원
- ▲정낙진(83행원)=5만원
- ▲정상영(61법학)=2십만원
- ▲정용당(63경제)=1십만원
- ▲정운경(60국문)=2십만원
- ▲정인안(60화학)=2십만원
- ▲정재호(62정외)=4십만원
- ▲조규(77경원)=2십만원
- ▲조성운(56경제)=2십만원
- ▲최대희(82행원)=2십만원
- ▲최성균(60법학)=2십만원
- ▲최세화(56국문)=5만원
- ▲최종봉(81식공)=1십만원
- ▲최종협(58경제)=1십만원
- ▲최현우(61정외)=3백2십만원
- ▲한내현(91경원)=2십만원
- ▲홍봉래(53법학)=1백만원
- ▲홍시현(63시학)=1십만원
- ▲홍석기(68경영)=2십만원
- ▲황명수(53정외)=2백만원
- ▲황성준(78법학)=1십만원
- ▲황용운(54경제)=2십만원

총계 : 2천5백6십4만원

츄리닝 협찬(50벌)

- ▲김철규=3십만원
- ▲박연백=9십만원
- ▲정재호=3십만원

수필



김사홍동문

날이 갈수록 아버지의 권위는 점점 하향곡선을 그리고 자신의 자리를 찾지 못하는 아버지가 하나 둘 늘어가고 있다는 보도는 우리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기며 충분합니다. 오늘의 자신이 있기까지 수고하신 부모님들의 정성을 잊고 사는 사람들은 과거에 비해 많은 것 같기에 여기에 아버지의 주역과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글

무릉도원이라 이름하리만큼 풍광이 아름다운 충북 괴산군 청천면이 바로 내고향이다. 속리산 국립공원의 화양 구곡과 선유구곡 입구에 나지막히 자리잡은 고향마을의 풍광은 자연의 대비가 두드러진 곳이다. 어릴 적 깊은 숲을 헤치며 다니나 언뜻 바쁜본비바람에 닮고 닮았지만 아무런 내색도 없이 우뚝 서 있는 커다란 비위들은 아버님의 일듯 모를듯 표정없는 얼굴과 비슷하다고 생각 했었다. 당신은 가난한 선비로 슬하에 7남매를 두셨고, 나는 그중 맨 막내로 태어났다. 나이 오십에 양으신 막내라, 자식들 가운데 유난히 도타운 사람을 주셨지만 예의범절이나 행동거지를 대해서는 여지없이 준엄하셨다. 잘못된 것을 보시면 옛 성현들의 글귀를 들려주시거나, 손수 당신이 몸으로 보여주심으로써 따라 하도록 하시는 것이다. 한학을 많이 하셔서 신학문을 그리 달갑게 여기지 않으셨던 아버님은 한학을 배워야 세상의 이치를 많이 알게 된다고 하시면서 농한기가 되면 서당을 열곤 하셨다. 행랑체 넓은 방에 인근 마을 청소년들을 이삼십 명씩 모아 늦은 가을부터 이른 봄까지 다양한 수준의 공부를 하던 제자들을 위해 항상 회초리를 준비해 두셨다. 당신은 학생들 스스로 싸리나무로 만들어온 이 회초리를 들고서 글자 하나하나를 짚어가며 뜻풀이를 해주시곤 했다. 이 회초리를 교편이라 하였으며 회초리로 학생들

에게 매를 대는 법은 없으셨다. (교직생활을 교편잡는다고 하는 말은 이를 의미하는 것이다) 당신은 인정도 많으셨다. 날이 저문에 지나는 길순이 있으면 꼭 받아들여 식사대접은 물론 자고 가도록 하였으며 식사 중에 거지가 찾아오면 함께 겹상토록 하여 걸인이 된 사연을 물어보곤 하셨다. 물질적으로 크게 여유롭지 않은 가운데서도 사람을 가리지 않고 누구에게나 너그럽게 베풀며 예로써 대하시던 당신의 생활에서 또한 당신의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여유와 예의 소중함을 배웠으나 나는 이를 이해하지 못함을 항상 죄스러워 한다. 이렇듯 아빈낙도 하시던 당신은 내나이 겨우 열다섯 나이던 해에 유명을 달리하셨다. 자식에게 재산을 물려주면 자칫 나타하고 방탕하기 쉬우니 재물보다는 지식을 물려주리던 가훈 그대로 당신은 내게 물질이 아닌 세상 살아가는 지혜를 배우라고 말씀하셨다. 내 자신 아버지가 되어 자식들에게 무엇을 남겨줄 것인지 생각하며 늘 당신이 들려주시던 말씀을 다시 기억해 본다. "선량하되 나약하지 않고, 용감하되 지혜로워라. 유능하되 오만하지 말며, 예리한 듯 부드러워라. 낭철하되 비정하지 말며, 이기기로 온후겸손하 여라."

○ ○ ○

아버님을 생각할 때면 언제나 고향산천의 모습이 함께 떠오른다. 모두가 농사를 짓고 살던 농촌 마을이지만,

금정상호신용금고



'골든웨이브 2000'은 금정을 영문화하여 이미지화한 것으로, 살아서 힘차게 움직이는
'금물결운동'을 통하여, 금정그룹의 기업문화를 확립하고, 금고와 고객 그리고 임직원이
하나의 커다란 불결을 이루며, 공동체 형성을 이루어 나가는 것을 말합니다.
금정상호신용금고는 효율적인 이익창출, 평생고객의 정착화, 공공이익에 기여 등 부문별
특성화로 미래의 장기비전을 제시하고, 2000년대를 준비하며 도약의 전기를 마련하겠습니다.



그룹會長 金熙秀
中央大學校理事長



금정그룹
금정상호신용금고

서울 중구 을지로 1가 192의 11
TEL. 756-1600 FAX. 752-2002



代表理事 鄭在皓
副會長
62年 政治外交學科卒
總同窓會 副會長(現)
政治外交學科 同門會長(現)